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編輯人 方應謨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歐洲大戰과 米國의 動向

一

「루-스벨트」大統領은 지난四日 諸國에 率先, 歐洲戰爭에 對한 態度를 闡明하여 對交戰國關係의 中立과 對內的인 中立法發動을 同時에 宣言하엿다 그리고 米國政府는 機會잇는때마다 大戰에 對한 嚴正中立을 强調하여 왓다 그러데 昨十九日 駐伊米大使 「필립스」氏는 伊太利外相을 訪問하고 獨逸이 態度를 表明치지 안는限 米國은 中立을 維持할수 업다 그리고 그結果는 마치내 數月內로 米國이 參戰하는것도 不得已한일이라는 米國政府의 意思를傳達하여 獨伊兩國에 警告하엿다 不過二週日前에 中立을 宣言한 米國이 俄然이와가튼 强硬態度를 表明한데는 蘇聯進軍에 刺戟되어 獨逸의 氣勢를 制禦하고 나아가서는 伊太利의 中立固守를 꾀하는 政策的意味가 多分히 包含되엇슬것도 容易히 推察되는바이나 그러나 이것을 全然一個外交辭令으로만 돌리는것은 米國情勢의 正鵠을어든것이라할수는업다。

二

米國對外政策의 動向을 살펴보면 國內에는 孤立主義가아직도 相當한 根據를 가지고잇고 또米政府當局으로도 中立及中立法發動을 宣言하엿슴에 不拘하고 歐洲大戰이 長期化하는때는 參戰을 不可避할事情에 잇다고 보는것이 妥當할것이다 元來現行中立法發動그自體가 事實에잇서 嚴正中立이 아니고 英佛援助의結果를 가저오지아니치못하는것이지만 지난十四日의 米國務長官의 『米國政府는 國際法上中立國으로서의 如何한權利도 放棄하는것이 아니다…그權利가 交戰國에 依하여 侵害될境遇에는 愼重한態度로써 그對策을 講求할것이다』라는 公式聲明이 意味하는바 米國의客觀的事情은 米國參戰의 最大要素가 되는것임을 이저서는안될것이다

三

勿論 이聲明은 表面上 極力中立을 主張하고 또한 그와同時에 中立國으로서의 權利를 强調한데 不過하지만 問題의重點은 中立國으로서의 權利라는點에 잇다고 볼것이다 그러면 中立國으로서의 權利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米國民은 交戰國과의 間에 잇서 戰時에도 平時와가치 通商貿易을 營爲할수 잇서야 된다는것이다 大抵 米國에잇서서 通商貿易의 發展을 目標하는 海洋政策이란 國家存立上 生命線과 가튼것으로서 第一代 워싱톤大統領遺言以來 金科玉條의 外交政策이엇다 그리고 特히 歐洲大戰以後에 獲得한 貿易發展은 놀랄만한것으로서 이것의 擁護야말로 米國對外政策의 全部가 아니면 안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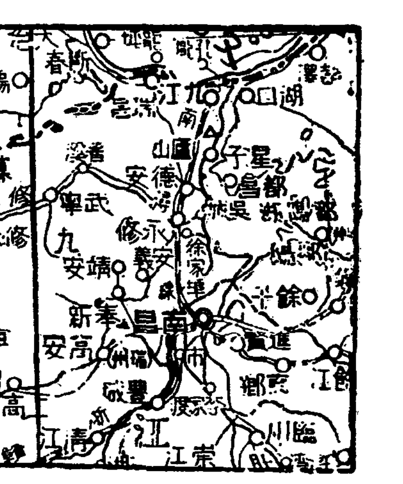
四

그러면 歐洲戰爭이 長期化하는날 果然 米國의 海洋政策에는 아무런 異狀도업시 通商貿易의 安全을 期할수잇슬까 問題는 오로지 이點에 잇슬것이다 第一次大戰때 中立國으로서의 米國船이 交戰國의 潛水艦에 沈擊된前例를 들지 아니하드라도 實際問題로 全歐洲가 戰亂에 차엿슴에 不拘하고 米國만의 『海洋自由』가 保障되리라고는 絕對로 미들수업는일이다 그러타고하면 米國은 孤立主義 政策과 參戰嫌好如何를 不問하고 그 生命線을 擁護하기爲하여는 非常對處를 하지안흐면 안될것으로서 結局『필립스』大使의 對伊警告는 이와가튼 客觀的事情에서는 外交的『제스추어』의域을떠나서 글字그대로 歐洲戰爭에對한 米國의態度가 될것이오 따라서 米國의大戰參戰은 不可避할것으로보인다。

先鋒竹內部隊一部
高安縣城完全占領
高安北方敵二萬을捕捉殲滅

【○○에서十九日發同盟】我空軍機의 偵察에依하면 竹內部隊의 一部는 十九日朝 敵部隊의 本據高安縣城에 突入, 城內의 殘敵을 完全히掃蕩한後 敗敵을西方으로 急追中이다

【○○十九日發同盟】十九日正午 我軍은 高安北方地區에서 鐵桶가튼 包圍網을 完成, 僅僅二十數키로에서 確實히 敵四、五師約二萬을 捕捉殲滅中으로 二十日朝에는 그掃滅을 完了할豫定이다



○○嶺溪谷에殲滅戰
羅卓英軍南方으로潰走

【○○十九日發同盟】十九日早曉 木島、池田部隊의 一部는 高安西北方二十키로 ○○嶺의 溪谷地帶에서 我包圍陣을 突破하여 宜豐方面으로 敗走中인 迫擊砲를가진 敵有力部隊를捕捉, 目下殲滅戰을 展開中이며 또蕃陽山陰을 突破 廣崎、園田以下 各南進部隊도 九日早曉에는 모두 高安西北十키로線에 躍進하여 快晴微風絕好의 殲滅日氣에 全軍의 士氣는 더욱더욱 旺盛하여 包圍殲滅戰은 最高潮에 達하엿다

【○○十九日發同盟】高安北方地區에서의 我軍의包圍殲滅은 十九日午前八時現在 周圍二十키로로壓縮되어 網中之魚로化한敵을 各處에서 擊滅하고잇다 目擊한 敵遺棄死體만으로도 三千을不下한다고한다

【○○十九日發同盟】十八日午前十一時 高安東北方八키로 奉新高安公路를扼하는 ○○、○○두 山에據한 敵主力을擊碎하여 盛路突破에成功한 我竹內、荻野、黑田、市川、寺生各部隊는 一路高安을向하여 南下하여 同日午後五時 그先鋒部隊는 高安北方三키로에肉薄 高安西四關의丘陵陣地에據하여 最後抵抗을試하는 敵에猛攻을加하고잇다

【○○에서十九日發同盟】高安、奉新間의 山岳地帶에 配備되어잇던敵六個師約四萬은 我竹內以下各部隊의 高安城外에의肉薄에 依하여 兩斷되어 一團은 竹內部隊 前方으로쫏겨 高安附近으로부터 ○○江을渡河 회둘러南方으로潰走하고 他一團은 高安北方地區에서 我軍圍에빠저 最後의抵抗을試하고잇다 大迂回戰을 敢行하여 十八日高安西方에 出現 敵退路를 遮斷한 池田、木島、仁禮、町田、米田等各部隊는 十九日早曉高安西方數키로에 걸처北方으로부터 南下하고잇는 長崎、飯塚、鬼塚、各部隊와 聯繫를 保持하면서 高安北方地區에서完全히 敵包圍圈을 形成하엿다 十九日朝來刻刻이를 壓縮하매 逃走할곳을 일흔 敵은 混亂狀態에 빠저 右往左往하고 敵屍는 累累한데 集團投降者도 續出하고잇다

【○○十九日發同盟】至妙한 我包圍作戰과 將兵의 勇戰奮鬪에 南昌戰의 敗將羅卓英은 또다시 一敗塗地가되어 高安北方地區에서 我軍圍에 빠저서 數個師의 友軍을 버리고 그主力은 十九日朝來南方을 向하여 敗退潰走中이다

中支方面의 海軍驚活躍狀況

【上海十九日發同盟】艦隊報道部十九日午後四時發表=中支方面에서 昨十八日終日海軍航空部隊는 暗雲을뚤코 때마침進擊中의 陸軍部隊에 協力하여 江西省西北部錦江流域의 敵據點其他地點에서 敵의背後를急襲 軍事施設軍橋及 集結中의 敵大部隊를 連續猛擊하여 모두이를 粉碎或은 擊滅하여敵에 甚大한損害를 주어地上部隊의進出에努力하엿다

原田熊雄男 園公을訪問

【興津電話】西園寺公秘書原田熊雄男은 十九日午前九時五十五分 興津坐漁莊으로 西園寺公을 訪問하고 日蘇停戰協定成立 經過及 歐洲情勢其後의 狀況其他에關하여 報告하고 同十一時五分辭去하엿다

政務官初會合

【東京電話】十九日決定된政務官은同日午後三時 首相官邸에서官記傳達에 參集하여 初會合을行하고 今後의 連絡方法其他에關하여 協議한結果 前內閣時代와가치 每週金曜日에 首相官邸에서 政務官會議를 열기로 決定하엿다

思惑行爲를自戒
遵法精神을發揚하라
總動員法發動과阿部首相談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十九日閣議에서 價格等引上禁止에 關한 總動員法發動을 決定하엿는데 그實施에 萬全을 期하고자 防犯及 違反取締等檢察을 嚴重히할必要를 認定하고 經濟事犯의 制裁機構擴充及 經濟警察强化에關하여 그大綱方針을 決定하기로되엇는데 更히 秘密取引市場絕滅을 期하고자 國家總動員法의 罰則强化를 하기로되어 改正案을 來議會에 提案키로內定하고 企畫院을 中心으로 同改正案의 立案調整에 着手하기로되엇다

內閣總理大臣談

物價騰貴抑制는 時局下經濟政策의 中心이 되는것으로 政府는 일즉그 對策實施에 關하여 鋭意努力中이던바 物價騰勢가 依然 그칠바를 모르고 特히 價格等의 公定을 紊亂케하는 傾向이 顯著하여 이것이 我國 財政經濟産業 國民生活等에미치는 影響이 자못큰만이니라 今次歐洲戰爭勃發에 따라 物價騰貴는 一層더할念慮가잇게 되엇스므로 此際强力한價格政策을實施할 必要가 切實함을 痛感하엿다

이리하여 政府는 價格等을 抑制하는 結果 內外諸情勢에 適應되는 我國物價의 安定을 하고자 應急的對策으로서 國家總動員法의 關係條項을 發動키로 決定하엿다 然則國民은 此際政府의 所期하는바를 諒解하여 조곰이라도 私利私慾을 버리고 嚴重히 思惑的行爲를 警戒하며 自進하여 遵法하는 精神을 發揮하여 我國戰時經濟의 圓滑한 運營에 協力하기를 切望한다

(寫眞은 阿部首相)

伍堂農相談

【東京電話】今回價格 引上의禁止中에는 農地地代 小作料까지도包含한것이나 이것의 實質價格에關하여는 別途의 抑制策을 至急講究할생각이다 其他 米穀統制法、米穀配給統制法、米價案施設法、肥料配給統制法等의 特殊法律로써 價格이公定 되어잇는것은 今回의總動員法 適用에잇슴은 勿論이다 그리고 輸出商品의價格과 內地價格을 如何히調整하느냐의 問題에關하여는 今後具體的 事例에비추어 愼重硏究를 거듭하여 早急히對策을講究할생각이다

物價等引上禁止
勅令案要綱審議

【東京電話同盟】政府는十九日閣議에서 決定한 物價運賃 賃銀等引上禁止의 應急措置에關하여 必要한 總動員法勅令의成案을 急히 하고자 二十日企畫院에서 法令關係各省에서 立案한 勅令案要綱을 審議會幹事會를 開催하고 關係各省間의 協議를 進行하기로되엇다 그리고 右勅令案要綱은

一、價格等에 關한統制令(第十九條)
一、同施行令(同)
一、家賃地代等의 統制令(同)
一、賃銀臨時措置令(第六條)
一、俸給統制令(第十一條)

等이며此等成案을기다려 來二十七日首相官邸에서 總動員審議會를 開催하여 諮問할 豫定인데 諸般手續을마치고 十月十日頃公布實施할方針이다

南總督
咸南平北視察

南總督은 咸南、平北兩道奧地開發狀況을 視察하기爲하여 來二十四日夜 七時三十五分 京城驛發列車로 咸南에向하여 長津江水電과 平北江界水電 其他沿線一帶를視察하고 다시二十八日滿浦鎭에서 擧行되는 滿浦、梅輯線鐵道開通式에 臨席한後 二十九日朝京城驛着列車로歸任하기로되엇다

物價抑制의餘波
一般俸給도規制
昇給規定以外의一般增俸不許

【東京電話同盟】九月十八日現在로 即 我國이 興亞의 大目標에 向하여 巨大한 第一步를내어딛인 事變記念日인 九月十八日로써 國內諸種物價는 引上停止를 當하엿다 事變以來統制的으로 産業의 全部門에 亘하여 施行되엇스나 이것은 歷史的인 巨彈이엇다 이餘波로 一般俸給은 勞賃과가튼 規制를 밧게되고 賞與金이나 俸給이나 自今 一個年間 變動을 保留하게되엇다 이俸給規制는 總動員法第十一條에 依한것으로 一般會社員만이 適用을 밧는것이고 官公吏個人商店員은除外된다 俸給이란 무엇을意味하느냐하면 目下大藏省의腹案으로는 月給、賞與、手當을包含하고 此等俸給은 九月十八日現在의額을標準으로하여 一般的으로 增俸을不許하며 月給手當은 從來會社에 昇給規定乃至內規가 잇는때에限하여 이規定에依하여 昇給을容許하며 또規定과內規가 업는境遇에는 會社는 이規定을새로作成하여 地方長官과稅務監督局의許可를 엇게될것이므로 俸給生活者는今後 會社가 軍需인플레때문에 好調로운 때에도過度의 賞與는 바랄수업스므로 軍需工業의 餘波를 謳歌못하게되엇다 但個人의 力倆에依하여 拔擢이잇는때의 昇給은 認定하기로되엇다 그리고物價家賃地代等에 關하여 이勅令이 公布될때까지의 (十月上旬)過渡的 措置로서 今日以上의 不當한 引上을 行하는者에 對하여는 十九日政府의 發表를 法令同樣으로 看做하여 暴利取締令과 總動員法의 罰則에 依하여 處罰을하게 될터이다

對波援助決意不變
蘇軍波蘭進駐와英政府態度聲明

【倫敦十八日發同盟】英情報省은十八日 콤뮤니케로써 처음으로 蘇聯軍의 波蘭進擊에對한 英政府態度를 闡明하여 蘇聯의 波蘭出兵에 關한 蘇聯側의 說明에는 承服할수업다고 하는同時에 英政府는 어데까지 對波援助義務를履行할 決意라고 如左히 發表하엿다

英政府는 蘇聯軍의 波蘭攻擊에依하여 惹起된 新事態를檢討하엿다 이結果 英政府로서는 盟邦波蘭이 獨軍의壓倒的兵力에直面消滅하려는 그때 이에攻擊을加함과가튼行爲를 蘇聯政府의 說明하는것과가튼議論으로서 正當化시킬수업다는 見解를 품게되엇다 此擊諸事件에關한 그意義는 아직充分히明瞭히되지안헛스나 이機會에 英政府는 全國民의 支持下에 波蘭政府에對하여 英政府가 當約한 모든義務를履行하는同時에 目的을貫徹하기까지 어데까지 全力을傾倒하여 戰爭을遂行할決意를 조곰도 變更하지안는다는것을 聲明한다

波蘭外交團 부하레스트로避難

【체르나우치羅馬尼亞十八日發同盟】波蘭政府及 外交團이 戰亂의 波蘭을 脫走避難한 國境附近의 羅領체르나우치의 混雜은 形容할수업는 混雜이어서 羅領內에 避難한 波蘭內務省은 外交團과 一般避難民에 對하여 混雜을 防止하고자 他都市에 避難하기를 勸告하엿다 이리하여大公使中에도 이미부하레스트에向한사람이 만흔데 西利大使도 十八日 正午베크外相과 會見後 一日休養한後 明十九日 館員全部를 데리고 부하레스트로 떠날豫定이다

阿部首相 閣議決定事項上奏

【東京電話同盟】阿部首相은 十九日 午後一時四十五分 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 拜謁, 同日閣議에서決定한 物價運賃勞銀引上禁止應急的措置 其他一般政務에 關하여 委曲奏上하온後 御前을 退下하엿다

畑陸相參內

【東京電話同盟】畑陸相은 十九日午後三時十五分 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 拜謁, 所管事項에關하여 委曲奏上한後 御前을退下하엿다

獨蘇兩國間에
波蘭占領處置諒解成立

【紐育十八日發同盟】十八日紐育에 達한伯林電報의 AP獨政界消息通情報로서 傳하는바에 依하면 獨蘇兩國間에는 波蘭占領後 그措置에 關하여 左記八項目에 完全한 諒解가 成立되엇다고한다

一、波蘭國家는 이미存在치 안는다
一、따라서 獨蘇兩國은 그自然的歸結에 責任을 질것이다
一、前波蘭政府施政下의 少數民族地位는 各民族의 民族的發展線에 따라 改訂할 必要가 잇다
一、獨蘇兩國만이 單獨으로新秩序建設의 義務를진다
一、波蘭은 將來에獨蘇兩國의勢力圈內에 들것으로 獨蘇兩國만이 波蘭國領土의 再建에對한 改善을 約한다
一、英佛兩國이 波蘭을 援助한다는主張은 實現不可能하게되어 그對波諸條約은 意義를喪失하엿다
一、英佛兩國은 무엇때문에 對獨戰爭을 遂行하는가의 難問題에 直面하게되엇다
一、獨蘇兩國은 波蘭에對하여 獨蘇間의 緩衝地帶로서 小領土의 維持를許可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波蘭態度如何에 달려잇다

佛軍大會戰準備

【바젤十八日發同盟】當地에達한 情報를 綜合하여보면 西部戰線의 戰況은 一般的으로는 多大한 進展은업섯스나 佛軍은 着着地步를 내드디며 將次의 大會戰에 對備하고잇는 模樣이다 卽

一、佛軍은 前週末以來 獨軍의 猛烈한 攻擊에도 不拘하고 陣地를 死守하고잇섯스나 再次 지그프리드線에 向하여 巧妙한 潛行的前進을 開始하엿다

一、未攻擊의 地點에 對하여도佛軍은全線에 亘하여 潛行的前進을開始하고잇는模樣이다 모젤溪谷, 자르브뤼켄 戰線에서는 有力한 獨軍과接觸하고잇스나 同方面의 佛軍은 他部隊가特定한地點에進出할때까지 現在의線을死守할模樣이다

一、佛軍은 호른바하附近及 츠와이브뤼켄南方에잇는 獨軍의 前線據點에 倂行하는線을 構築하려고하고잇다 자르브뤼켄東部地方에서는 兩軍의前哨戰이集中的으로展開되고잇스나 同時에 보주山系의 森林地帶를넘어 비즈及 와이센브르그 와의 사이에 偵察이盛行되고잇다

北歐四國外相 共同措置協議

【코펜하겐十八日發同盟】北歐諸國은 蘇聯軍의 波蘭進駐에 驚愕하여 歐洲政局에對하여 急遽對策을 協議키로되어 丁抹, 諾威, 瑞典, 芬蘭의 北歐四個國은 十八日 丁抹首都코펜하겐에서 北歐四個國外相會議를開催코 北歐諸國의取할 共同措置에關하여 重要協議를開始하엿다

獨、印度人을使嗾
印度獨立煽動放送

【伯林十八日發同盟】獨逸은 英國이 節介를무시하여 獨逸과 媾和치안코 抗戰을繼續하는 限英國을 打倒코저 온갓 可能한 手段을 講究한다고 豪語하고잇는데 그工作으로서 獨逸은 在獨印度人을使嗾하여 印度獨立運動을 示唆煽動을企圖하고잇다 即十八日午後七時獨逸 宣傳省은 印度人으로하여금 如左한 印度의獨立放送을 시켯다 英國은 印度三億民衆의自由를빼앗고 이를搾取하여 今日과가튼 裕福한 生活을 享有하고잇다 印度人에게 政治的自由를 주엇다고稱하던印度國民議會와가튼것은 欺瞞에不過하다 我等印度人은 今日의 歐洲危機를 利用하여 最後의英國人이 印度를 떠날때까지 印度의 自由를 爲하여 싸우지안흐면 안된다

이放送과함께 獨逸放送局은 『瑞西新聞은 獨蘇兩國이 對英策에 狂奔할 境遇 印度에對한影響은 無視할수업서 이제大英帝國은 崩潰할危機에 處해잇다』고報道하엿다 이事實에 關하여 獨政界는 獨蘇兩國이 世界的規模의 合作運動實現의 第一步를 내어드딘것이라고보고잇다

모로토프演說
"渦中의波蘭人을 慘禍로부터救助"
赤軍波蘭進駐의使命

蘇聯에서는 지난十七日에 大軍을 出動시켜 波蘭領內로 突進하엿는데 이날 蘇聯人民委員長(首相)『모로토프』는 이에關하여 莫斯科에서 『라디오』를通하여 露西亞語로 다음과가튼演說을 放送하엿다

우리偉大한 蘇聯의 男女諸君! 獨波戰爭으로 因한 事態는 波蘭政府의 內部的崩壞와 明白한 無能을 表示하엿다 波蘭의 統治機關은 倒壞되엇다 이것은 두 短期間中에 일어나서 二週間餘에 波蘭은 國內의 工業地帶의 全部와 大都市를 일허버리고 그리하여 文化의中心도 일허버렷다 波蘭政府의 首都『왈쇼』도 벌써 存在하지안타 그래서 아무도 波蘭政府의 所在地를 모른다 波蘭人民은 그들 指導者의 失敗로 말미암아 되는대로 맛겨둔 狀態에 빠저서 波蘭國家及그政府는 事實上 存在하지안케 되엇다 이러情勢아래서 蘇、波兩國間에 締結된條約도 또한 그實効를 停止하게되엇든것이다 現在波蘭은 蘇聯政府가 自國의安全을 期하기爲하여 特別한 配慮를 必要하는 狀態로 되엇나 波蘭은 蘇聯에 脅威를 줄 모든 事態의發生에 알마즌 地域으로되엇다 最近까지 蘇聯政府는中立을維持하여엿스나 方今發生하고잇는 狀態에 對하여 蘇聯政府는 中立的 態度를 維持할수는업다 蘇聯政府는波蘭領內에 居住하면서權利를 享有치안코 이제 모두 되는대로 마껴두는 狀態에잇는 同種民族『우크라이나』人及 白露人의 運命을 平然히 看過할수 업다 蘇聯政府는 波蘭居住의同胞『우크라이나』人及 白露人에 對하여 援助의손을 떼는것이蘇聯의 神聖한 義務로 생각한다 이런 立場으로부터 蘇聯政府는 今日朝에 駐莫斯科波蘭大使에 對하여 覺書를 手交하고右覺書에서『蘇聯政府는 赤軍總司令官에 對하여 그軍隊를越境進駐시켜서 西部『우크라이나』人及西部白露人의 生命財産을 保護下에 두도록 指令을 發하엿다』고 말하고 다시『蘇聯政府는 同時에 波蘭指導者의 失敗로 말미암아 끄을려드러간 波蘭人民을 戰爭의 慘禍로 부터 救助하고 그들에게 更新의 生活을 주기 爲하여 모든 措置를 할 準備가 잇다』고 말하엿다

九月一日『우크라이나』白露其他 四軍管區의 赤軍豫備兵의召集을 한때에 波蘭의 狀態는 明白하지안헛스므로 赤軍豫備兵召集도 警戒의 措置에 그치고잇섯다 누구나 波蘭國家가 너무도 脆弱하여서 急速히 崩壞하여 現在의 波蘭에 이르게될줄을 생각할수는업섯다 그러나 이崩壞는 實現하엿다 波蘭의 原動力은 全無에歸하고 元來의狀態에 도라갈힘을 일헛다 最近의 豫備兵召集으로써 完璧하게된 赤軍은 名譽에걸고서 그榮譽잇는目的遂行에 當할것이다 又政府는 確信으로써 우리勞農赤軍이 새로戰鬪力과 自覺과 訓練을 發揮하여 새로운 勳功과 男氣와 榮譽를 보일것을 밝히는바이다 蘇聯政府는 波蘭大使에게 覺書를 手交하는것도 蘇聯과外交關係를 가진 各外國政府에 對해서는 依然中立政策을 維持하는것임을 聲明하엿다 對外政策에 蘇聯의取한最近의措置는 이로말미아마 意義가 明瞭하다 그리고政府는 蘇聯市民에對하여 다음과가튼 注意를 喚起한다 即豫備兵의 召集으로써 政府가 物資의供給에 糧券制度를 實施한다는 風說도

食糧 及 物品

우리市民中에 多量의 食糧 及 物品等을 貯藏하려하고잇다 이일에對하여 政府는 分明히할必要가잇다 蘇聯政府는 食糧及工業生産品의 供給에 關하여 例를들면 對外事件으로 말미암아 政府의 措置가 若干 느저저도 糧券制度를 實施할 생각은 업다 余가 격정하는것은 食糧品의 法外인 買藏은 그것을 사려하는 他人에게 累를 끼치고 또 必要以上의 食糧을 貯藏할 境遇에 腐敗시킬 危險이잇는일이다 我國은必要하는 모든것을 確保하고잇다 糧券制度가튼것은 回避할수잇다 方今 우리의課題 모든 農民及勞動者의課題 모든勤勞者及知識人의課題는 各其 마튼일에 獻身的으로 從事하는데잇다 그로말미암아 赤軍에對한 援助를할수잇다 우리名譽잇는 赤軍兵士에 對해서는 余는그들이 祖國의名譽와 光榮아래 自己의本分을完守하리라고 미더서 疑心하지안는다 蘇聯의全國民 赤軍將兵 海軍은倍舊의團結을하고 政府도『볼쉬비키』黨도 偉大한『사타린』도새工業과『콜코스』의 成果를 내기爲하여, 그리고 赤軍의戰線에서의 光榮잇는 勝利를爲하여 一致團結하고잇다

陸軍少將資格으로
윈저公、國外某要職에

【倫敦十八日發同盟】英情報省은 十八日윈저公은 近近陸軍少將의 資格으로 外國某要職에 就任할것을 發表하엿다

市況(十九日)

◆橫濱生糸後引◆ 當限 一五七〇 先限 一五三〇

(商工省屆濟)

保險으로培養하라銃後의力

百億貯蓄은保險에서

長期에亘한確實한貯蓄方法으로서生命保險의利用은益益增加하고잇습니다

採算的인生命保險으로서이미定評잇는我社의新種養老保險을玆에推奬합니다

契約高 二十億三千五百餘萬圓(十四年七月末)

契約件數 百三十四萬六千餘件(十四年七月末)

帝國生命

本社 東京丸ノ內

支店(東京·大阪·名古屋·京都·福岡·札幌·廣島·仙臺·金澤)
支部(臺北·京城·神戶·橫濱·大連·高松·秋田·熊本·函館·新京)

營業案內·健康增進叢書·進呈

14-9-A

新富座
九月十九日—二十一日 每日晝夜二回 一時七時卅分開映
◇大毎寫眞ニュース
◇東寶映畫社超特作 はたらく一家 監督 成瀨巳喜男 主演 徳川夢聲 大日方傳
◇コロムビア映畫特作 紅薔薇行進曲 監督 エドワード·H·グリフィス 主演 メルビン·ダグラス
◇全勝キネマ社特作 祭明三人吉三 監督 松本榮三郎 主演 宮川敏子

第一劇場
九月十八日부터 晝夜二回
樂陽劇團來演
林仙圭 作 悲劇 溫室에핀찔레꽃 二幕四場
花山學人 作 喜劇 新式舊式 二幕
大衆料金

演劇號
九月十八日부터
YKH 스윙그·알뱀金
新作劇本發表週間! 多恨女 朴順女 女史의 性格숨은 演技를 乞期待!

清津 共樂館에서
東洋의쌀리-템플 當年六歲少女歌姬 金吉子孃 熱演 相對役 金順德孃

大陸劇場
9月14日より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1·00	2·58	7·00
新女性問答	11·10	3·08	7·20
椿姬	1·02	5·00	9·12

松竹映畫 明治座
9月18日より上映時間表

干潮	10·00		
ニュース	11·34	3·13	7·32
夜は巴里で	12·11	3·50	7·32
干潮	1·39	5·11	8·55

近日上映純情二重奏前後篇

學園의不祥事！

先生에게毆打當한生徒 週餘呻吟·突然急病死

大東商業四學年生의 奇怪한死因 / 失心의父親, 問題先生相對로告訴

숙제를 하여오지안햇다고 선생이 제자를 따리며 퇴학을시킨다고 울려대자 학생은 집으로도라가 독약을마시는 소동을일으키고 병원으로 떠메간후에는 급성늑막염으로 기괴한 죽엄을한 근래드문 불상사가발생하여 교육계에 일대충동을 주고잇는사건이잇다

부내동소문정(東小門町)사십오이백십팔번지의 구호 균명학교(均明學校)교장이오만리현(萬里峴)예배당전도사인 김영순(金永淳)씨의 둘째아들의환(義桓)(一八)은 지금까지 부내계동정(桂洞町)대동상업학교(大東商業學校) 사학년 에이조(A組)에 재학중이엿는데 지난십이일여섯시간채인상업부기시간에 숙제를 하여가지안헛다는것으로이학과담임인 문승욱(文承郁)(三五)선생은 시간이 끗나자 의환을 다리고 직원실로 들어가 숙제를 안해온 놈은 학교에 부처둘수업스니 퇴학을 시켜야지한다고을르며 함부로따리엇다 이때의환은 출학이라는 말에 겁이나서 『안입출학을 시키시려거든 제아버지를 불르셔서 말슴이나 하시고 퇴학을시키셔야지 저는집에돌아가 할말이 업게되지 안허요』하고 애소하엿스나 문선생은 『네아비를 불르고 아니부르는것은 선생마음대로이지 네가 무슨말대꾸이냐』고 호령을하고 또 따리엇다고한다 이런 한 일을격고 학교에서 오후다섯시쯤 돌아온 의환은 퇴학을 아주당한것으로알고 근처가게에서 양잿물을 두덩이를 사가지고 자기방인 뒷방에들어가 마시고 말엇다 신음소리에놀란 부형들은 곳 쌀뜨물을먹여 양잿물을 토하도록하고 자동차에태워 남대문통세부란스병원으로 갓다가 입원치료를 시켯다 이비인후과에서는 곳응급치료를하고 내과로 옴기엇는데 의환은 그이튼날인 십삼일부터 갑자기급성삼출성늑막염(急性滲出性肋膜炎)을병발하여 십칠일에는 연구리에서 물까지빼내고 십팔일에는병세가갑자기 더 악화하야 오후세시반 사망하고말엇다는것이다 그러나 학교당국에서는 이불상사를 그대로묵살시키려고 김영순씨에게 어사실을 경찰에나 신문관계자에게 알리지말면 치료비와 장례비를 부담하겟노라고까지 이야기하야 김씨의 더큰 분노를 사게되어 십구일종노서에 가해자 문선생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게에이르럿다

그런데 문제의 문선생을 십구일밤 삼청정(三淸町)일백삼십칠번지 자택으로 차젓스나 외출하고 부인이 나와『학교일판계로 교무주임대에 가신듯하다』고말하엿다 (사진은 김의환)

駭怪한學校當局態度

事件一切를隱蔽하려고裏面策動

문제를 이르킨 문승욱(文承郁)선생은 작년에도 생도를따리어 학부형에게 시비를 바든일이잇고 근래에는 그 도수가 빈번하여 학교당국으로서도 여러번 주의를 시켜왓다고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사건을 감추기위하여 한(韓)교무주임이 수차 김의환의 가정을차저 신문기자와 경찰에 알리지안토록하여달라고 청하엿는데 의환이가 죽고나자 십구일에는 이로말미아마 생긴 모든비용을 전부 부담할터이니 말을내지 말어달라고 청하는동시에 교장은 문씨를 면직처분 한다음 외부사람에게는 사건전체를 보인하고말엇다

가슴아픈일

父親 金永淳氏 談

자식놈을 먼저나볼하고 말엇더니 그러케 울둑까지하고 늙마에 일어나 죽음을은 볼랏습니다그려 그러나 이것은마진까닭이 아니겟습니까 나는 우리아이놈이늑막염으로 진단이되자 대동상업학교의 교무주임 한상길(韓相吉)선생과 그아이의 담임인 김명진(金鳴鎭)선생을 차젓더니 그교무주임말이 요번일은 오로지 문선생의 잘못이니 용서하라고합니다그려 나도 처음에는 가튼교육자라는 입장에서 사건을 될수잇는대로 온당하게 해결하려고 햇섯스나 장례비용을 부담하느니 침묵을 지키란느니 너무 이면주를 무시하는 학교당국이 괴상한태도를 보이므로 나보다도내아오가 분개하여 고소를하게된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부가 되고한다면 두번죽엄이 되는것이니고소한것도 깨끗하고 지금은그저가슴이 아플뿐입니다

事實絶對否認

校長 金萬壽氏 談

동교교장 김만수(金萬壽)씨는 말한다 우리학교에는 그런사실이 업슬뿐더러 나로서는 그런소문도 못들엇고 문씨란교원은 우리학교에 잇지안습니다 하고 사건전체를 전부 부인하는태도를 보이고잇다

致命傷은 急性肋膜炎

擔當醫師 談

김의환(金義桓)의 담임의사이엇든『세부란스』내과의사 이철영(李喆永)씨는 말한다 『병명은 급성위염(急性胃炎)과 급성삼출성늑막염(急性滲出性肋膜炎)입니다 급성위염은 음독한까닭이겟스나 못살고말엇든 치명상은 급성늑막염입니다 그학생이 선생한테 마젓다는 말을하는것은 들엇는데 급성삼출성늑막염의 병원이 반드시마저서생기는것이라고 할수는업스나 흔히는 마저서생기는 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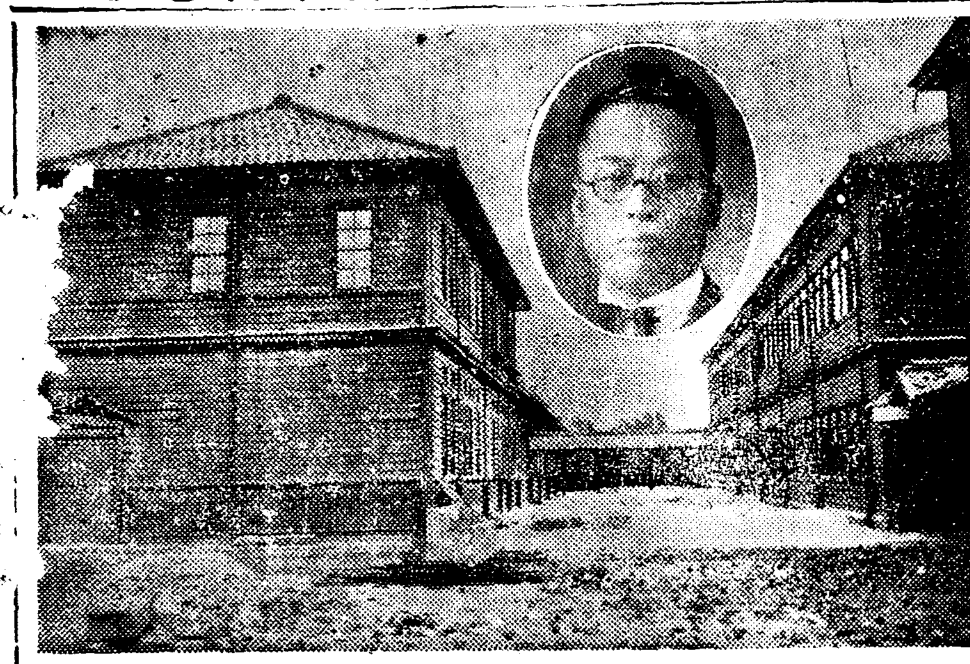
總督을보내는 三町民送別會

부내왜성대정(倭城臺町)일출정(日出町)수정(壽町)등세동네 주민들이 자부자모(慈父慈母)와가치 경모하던 남총독부부는 드디어 오는이십이일총독부뒷산신무문(神武門)바게 광장히 신축한 새관저에 이사하기로 되어 오랫동안 다정하게지내던 정내주민들과 작별을 하게되엇다 이 작별을 섭섭히생각하는 이상의 세동네사람들은 이십일오후다섯시부터 일출소학교강당에서 남총독부부의 송별회를 개최하기로되엇다 그리하여 남총독부부도 이에 출석을 쾌락하고한경민으로서 오랫동안이폐를 끼첫다는등 그동안 지내던이야기를하여 석별할·고하기로되엇다

그리고 또남총독이 한반원으로서 가입하여잇던 왜성대애국반에서는 삼교경무국장(三橋警務局長)이하 전반원이 모여서오는 이십일오후오시부터 왜성대관저후원에서 송별회를 개최하기로 되엇다

東新商科學校 校舍新築

今冬弘濟外里에竣工



부내도화정(桃花町)이번지 동신(東新)상과학교는 지금으로부터 오년전인 소화십년시월십일에 부내 수표정(水標町)사십이번지에서 현교장 김보영(金保榮)씨가 창설하게된것으로서 그동안 만흔 난관을 넘어서 지금에는직원 다섯명, 생도이백여명을 포용하는 현상에이르러 교운이빼처서 지난이월에 산수조코 공기맑은 홍제외리(弘濟外里)에일만이천여평의 교사기지를 사고 이번다시 경기중학교 구교사를 매수하여이를 십이만원의 경비를드려 전기기지에 옴기게되엇는데십이월까지에는 준공될모양이다

그리고 이교사설계는 본관은 이층으로하고 교장실, 직원실, 응접실, 도서실, 표본실, 교실등으로되어잇고 이외에 강당과무도장을 겸한건물과 숙직실등으로 백여평을 건축하게 되엿고 기숙사도 명년안으로 지으리라는데 이교사가 완성되는 동시에 다년간 숙원이던 상업학교로서의 인가도 될것으로 기대되고잇다 이에대하여 김교장은 다음과가치말한다

『우리학교가 이가치 순조롭게된것은 오직 사회여러분의 힘과 학부형여러분의 덕이어서 기피 감사하는 바입니다 저이도 이에 성의를 다하여 여러분의 기대에 만분의일이라도 보답하기에 힘쓰겟습니다』(사진은 경기중학 구교사와 김교장)

吉州至急電話開通

【吉州】 금번도지급전화는 십오일부터 가설에 착수하여십칠일에맛첫는데 작기와가치 개통을하게되엇다고한다

百四九番 本報吉州 李與洙
五○番 吉州局 崔鎔岩

清津貧民街 大火

【淸津에서 吳快一時派員發電】 십구일오전령시삼십분 청진부(淸津府)수원지압 포항동(浦項洞)일백육십삼번지 빈민굴에서 돌연 불이 일어나 김용운(金龍雲)의집등 두채 여덟세대의 살림과 가옥을 삽시간에 태워버렷다 발화즉시로 청진경찰서원과 소방조가 출동하여 진화에 노력하엿스나 집이 모두『빠락』이기때문에 미처 손댈사이업시 전소하고말앗다

번영을 자랑하는 공장지대뒷거리에 가난한 살림을하고잇는 빈민들의 화재인만큼 피해자들은 비통한운명에 울고잇다 현장의 상황을 보매 불탄자리에는 타고남은 세약철몃조각이잇슬뿐 가장집물하나 남지안헛는데 여자들과 어린애들의 울고잇는 양은 눈허리를 뜨겁게하엿다 한집건너 겨우화재를 면한『빠락』에는 이빈민굴에사는 어린이들을위한 서당이 잇는데 수업중에 불이일어나 어린가슴들이 저옥히놀랏슬모양이나 불이꺼지나 반시간도못되어 다시 종을 울리고태연히공부를 계속하고잇는양을 보고 가슴에 묵직한 무엇을느꼇다

그리고 발화원인기타는아직미상하다

稅務吏不正事件 不日送局

경성세무 감독국원(元)간세과장(間稅課長)산전관삼(山田貫三)과원(元)경성세무서 간세계제이계주임 마선갑(馬善甲)등 아홉명의 세무리를 중심으로한 양조판계의 증수회(贈收賄)의사건은 그동안 경기도경찰부에서 계속해서 준엄한 취조를 계속하고잇섯는데 취조의결과 죄상이 명백해젓스므로 불일내로 송국하게 될모양이다 이들은 수년전부터 부내유수의 양조업자 인천일(天一)、불로(不老)등여러 양조업자로부터 금품을 바든외에 수십차에 걸처향응을 밧고서 그대상으로 술검사때에 지나치게관대한 태도로술검사를넘겨주고해온것으로 수회액은 일만원가량에 달하고잇다한다

흙구루마에 小兒가轢傷

십구일 오후세시삼십분경 부내영등포정(永登浦町)이백오십삼번지 권달수(權達守)의 장녀 간난(干蘭)(三)은 도지기집 아페서 놀고잇던중 부회정리공사장에서 흙을 운반하는 도록고에치어 외인편발이 잘너저 쓰러진것을즉시 부근병원에 떠메어다가 응급수당을 가하는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

간난이가 치어 치명의중상을 입은곳은 며칠전에도 그동리어린애가 치어죽은마(魔)의장소로 청부업자 삼택조(三宅組)에서 감시인을 두지안헛기때문에 이런사고를 자조일으키고 잇는것이 사실이므로소관 영등포서에서는 삼택조의책임자에게 엄중 경고한바잇섯다

今日延專對全普專蹴球豫想

延專의攻擊力을 普專이封鎖할가, 高潔한精神아래싸우자

蹴球의爽快味를 滿喫할 延專對全普專의京畿代表決定戰은 今二十日 午後四時半보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하기로되엇다 延專現役과 先輩를網羅한 全普專과의 對戰은 延普蹴球戰史上에잇서서 첫對面인만치 斯界의 期待를이끌고잇는同時에 熱잇고 內容豊富한 一戰일것이다 最近의實例를보면 早大를마지하엿슬때에는 延專이五對一、全普專이三對二로 各各이겻고 普北軍과는 延專이八對零、普專이四對零이란스코어를 내인것으로보아 延專의 攻擊力이 普專보다 優位에잇슴을 證明하고잇스나 普專은 RF玄孝燮君과 LH金容植兩先輩를 守備線에配置하여 防禦에充實하다면 따라서 攻擊力에도 加勢될것은 事實이니 容易히豫斷키어려운 對陣이라하겟다 對戰選手를보아 普專의FW線은 從來의 스탠드·플레이를버리고 스피ー드잇게움직이면서 生命으로삼는 突力을살리려는 새로운作能을 發揮하고잇섯다

兩軍의出戰멤버ー를豫想하건대

【延專】【全普專】 GK、RF、LF、RH、CH、LH、RW、RI、CF、LI、LW [illegible]

全普專은守備에 延專은攻擊에 한데 延專의FW線이 普專의防禦線을 突破할수잇슬가하는것이 興味의 焦點이자 勝敗의分岐點일것이다 全普專은 守備에比較的 老練한點이잇고 延專은비록 큰게임을 치러본 經驗이 적으나 普專에比하여 若干떠러진다 延專은 過去에잇서서 普專에게氣力과闘志에잇서서 超越한精神力에左右되는 延專對戰이니만큼 말하여둔다

이번豫選이 朝鮮神宮大會에 出場하는것뿐이아니라 明治神宮大會朝鮮代表豫選에서 東京行을決定하는데 咸興、淸津軍과 雌雄을決할터이므로 兩軍모두 무거운責任感과 지나친興奮에實力을 充分히 發揮치못할는지도모르나

中央中學과 中東各勝

蹴球豫選第二日

(高鳳梧記)

朝鮮神宮體育大會京畿道支部主催의 朝鮮蹴球協會京畿道支部 蹴球豫選第二日은 十九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리바 그 日程과 가트며 今二十日午後四時부터는 中等部 一般部 準決定戰이 열리리이며 延專對全普專戰은 午後四時半부터 擧行할터이다

中央2（0:0 2:0）0東星

中央中學對東星商業戰은 同午後二時半부터 朴義鉉(主)李永相 鄭鳳熙(線)三氏審判下에 東星킥오프로 開始한바 兩軍好調를보이더니 十分에 中央의猛攻이잇서 LW李秉南의 크린킥으로一點을 先取한後 또다시 RI李成煥의 渾身으로 一點을加하여 二對零으로 中央리ー드한채 前半을마치고 後半에들어가 東星軍도 猛勇이어지 못하고 허되이 물러섯다

【中央】【東星】 GK、RF、LF、RH、CH、LH、RW、RI、CF、LI、LW [illegible]

中東2（1:0 1:0）0商工 （개임六十分間）

中東學校對 商工獎勵館은同午後四時부터 林鶴植(主)、李亨吉、許鎬(線)三氏審判下에 商工킥오프로 開始한바 中東軍의 攻勢熾烈하여 前半에 LW崔一德의 슛으로 一點을너어 더욱氣勢를 올린다음 後半에들어서 三十分에中東페날티킥을 得하엿스나失敗하고 라임업 一分을 남기고 中東LW崔一德의 코ー너ー킥을 LI張太白바더 슛하여二對零으로中東快勝하엿다.

【中東】【商工】 GK、RF、LF、RH、CH、LH、RW、RI、CF、LI、LW [illegible]

京城體協役員

七十五萬京城府民의 體位向上을目標로 過般組織된 京城體育協會役員은 左記와如히決定되엇다 顧問其他役員은 近日中役員會에서 決定委囑할터이다

會長 京城府尹 高橋敏 副會長 朝鮮商業銀行頭取 堀正一 同 朝鮮紡織株式會社專務 武者鍊三 同 朝鮮麵子株式會社社長 金思演 同 京城府總務部長 山田繁吉 理事長 京城府社會課長 宮原馨 常務理事 京城府主事 石川慶一 理事 京城府主事 文錫振 同 京城實業野球聯盟 安田義信 同 京城水上聯盟 荻原佐平 同 京城體育協會陸上部 月野仲藏 同 京城自轉車聯盟 孫光植 同 京城氷上競技聯盟 正木茂久 同 京城重量擧競技聯盟 白龍基 同 京城實業蹴球聯盟 金東轍 同 京城相撲協會 矢部四郎雄 同 京城軟式野球聯盟 井上文市 同 京城排球協會 北島儀藏 同 京城實業軟式庭球聯盟 野副研介 同 京城實業籠球聯盟 金亨泰 同 京城拳鬪聯盟 黃乙秀 同 京城體操聯盟 村岡哲夫 同 京城硬式庭球聯盟 森虎重 同 京城卓球協會 朴在幢

今日의運動

運動界 人事·集會

▲蔡藩氏(前本社員)滿洲國公主嶺滿蒙產業株式會社에入社 二十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發任地에

▲蹴球=神宮體育大會京畿代表決定戰·普成中學對徽文中學(午後零時)、培材中學對松都中學(午後一時半)、中央中學對中東學校(午後三時)、全普專對延專(午後四時半)京城運動場 觀覽料 一般二十錢 學生十錢

今番旱害救濟工事 中間搾取徹底排擊

勞賃撒布目的에違反되는請負制禁止

충남북조선 칠도의한해 구제사업은 이십일충청북도 임시지급도회를 마지막으로 관계각도의실시준비가 대개완성되엇는데 이에대하여는 십구일 총독부국장회의에서도 남총독(南總督)으로부터 근본대방침을 훈시한바잇섯거니와 이번재해는 일직이보지못하던 참경인만치 총독부에서는 그구제사업의 실시를매우 엄밀히하여 재민들을 궁경으로부터 건지기에 유감이업도록 하고자 여러가지로 연구검토를거듭하여오던중 십구일 다음과가튼 사항을결정하여 대죽내무국장(大竹內務局長)의담화로써 발표한바가잇섯다

금년경기도 이남칠도일대의 한발상황은 그격심한바가 실로미증유의재해로서 그이재민의수가 또한 극히 다수에달한다 이들의구제대책의 하나로서 전번에 약사천팔백만원에달하는 노임살포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후 이미관계각도에 통첩을발하엿는데 각도에서는 즉시긴급도회를 것처서한해구제사업에 착수하기로되엇다 그런데 이번한해는 그범위가자못 광범하므로 노임살포공사를 실시함에대하여는 특히 주도면밀한 주의를하는것이 가장긴요하다 그래서 종래와가치 공사를 청부업자등에게 청부시켜서는 천신만고하여 구제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노임의 대부분이 중간착취를당하여 당초의 본의에어그러질념려가 잇슬뿐아니라 과거에 그러한 전례가만헛스므로 이번호사방 임도(林道)토지개량등 여러가지 공사실시에대하여는 청부업자에게 청부를 시키지안는것을 원측으로하여 읍면당국에 담당실시시켜서 노임살포의 목적을 철저케하기로 방침을결정한후 십구일 이뜻을 각도에통첩하엿다

南總督、南浦에

黃海戰의由緒기픈蘭花贈與

무적 황국해군의 기초를 쌋흔 일청전역의해전(黃海戰)은 지난십칠일로써 사십오주년기념일을마지하엿섯는데 이기념일에잇서 동해전에인연이기픈 왜성대총독관저의 난화(蘭花)『정원』(定遠)을 남총독으로부터 황해해전때 아함대(我艦隊)의 근거지로서 이역시 유서기픈 진남포(鎭南浦)에 분여하여 영구히 황해전을 기념하기로되어 남총독은 십구일 흑목(黑木)해군어용계를통하여 진남포의 간기(間瀨)해군대좌에게보내게되엇다

이 난화는 황해해전때 적의 기함(旗艦)『정원』(定遠)에실리어 북양수사제독(北洋水師提督)정여창(丁汝昌)의 사랑을받던것으로 정이 위해위(威海衛)에서 자살하기전 그난화를 아포함(艦)『적성』(赤城)에보낸것으로이후이것을『정원』이라이름부처 왜성대관저에심어 역대총독에게 귀여움을바다오던것이다

江原主要地門 電話開通

경성―강릉간、이천―삼척사이전화가 오는이십일부터 개통되어 판게지방민의 다년의요망을 이루게되엇다 통화료는다음과갓고 호출료는 일회에 모두 사십전씩이다

京城江陵間 九○錢
同 注文津間 九○錢
同 三陟間 一○○錢
同 襄陽間 一○○錢
利川三陟間 九○錢
同 注文津間 八○錢
同 襄陽間 九○錢

府民舘內의興行을 禁止하라陳情

興行業者들의自衛策

십구일아침 본정서보안계에는 명치좌(明治座)약초영화극장(若草映畵劇場) 황금좌(黃金座)경영자등 경성흥행협회(京城興行協會)대표자들이 차자와서 보안주임에게 태평통에잇는 부민관에서열리는 영화상영등 흥행중에서 순전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것은 우리들의 영업을보호하는의미로 금지하도록하여달라고 진정을하엿다 이에대하여좌등(佐藤)보안주임은 다음과가치 말한다

부민관에대하여서는 그전부터 오락장화하엿다는평이 잇섯는데 서장의 의견을들어선처할생각이다

江陵安木港에 電燈架設要望

【江陵】 강릉읍의 [illegible]니라 강릉의 철송시가지점이동읍의안목(安木)항촌에는 삼백엿이오각지 각어촌이 다밝히고잇는 전등가설이업서 밤이되면동항촌에서가장 필요로하는 라디오기상뉴쓰조차 듯기에여간한불편을 느끼고잇지안타고하는데동지점읍대의 주민들은 회사에서 다소의희생이잇드라도 어떠케하여서든지 동강릉읍의 정상적인 발전을위하여 이지점까지는 기어코 전등을 요망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漁船建造費 四千五百卅圓支給

【春川】 강원도에서는 어민들에게 어업을 조장하기위하여 도비로서 어선건조비를 매년지급하여왓는데 금년에는 약칠천원을 예산중에서 위선사천오백삼십원을 십사명에게 근일지급하기로 결정되엇다

曆

▲九月二十日(水曜) 陰八月八日 ▲干支庚申 ▲日出午前六時十八分 ▲日南中午後零時二十七分 ▲日入午後六時三十六分 ▲晝間十二時十七分 ▲月出午後一時十六分 ▲月入午後十一時三十分 ▲滿潮午前九時二十五分 午後十時十分

딱총

병주고 구박하는 남편걸어 소송、

○

병도 사랑삼아 줘단말이가? 그럼서대 구박은 웬일야!

○

돈아니준다고 처가족 네명을 살상하고 자살、

○

돈을모르는 짐승이돼드면 이짓은 안할것을.

○

남총독 말하기를 『일하지 안는자는 먹지도못한다』고、

○

일하지안는자는『먹이지도』안하야.....

…今日天氣…晴一時曇…

獨學 青少年君諸葉 書一枚奮發하라

自宅獨習一個年에........ 中學을卒業할수 잇다!!

日本一の 中學講義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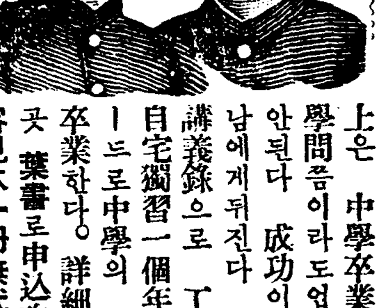
無學은男子의恥

中學講義錄도여러가지

獨學青少年大歡喜!

아무리하여도 이제부터의 世上은 中學卒業程度의 學問쯤이라도 업서서는 안된다 成功이어렵다 남에게뒤진다 本校의 講義錄으로 工夫하면 自宅獨習一個年의 스피ー드로中學의 全科를 卒業한다. 詳細는只今곳 葉書로申込次第 內容見本一冊無代進呈함

東京市牛込區台町十五 大日本通信中學校



見本冊進呈

斷然이것이조타 잇지만

鐵道員大不足 各地大募集

鐵道員となる早道

日本一第一

◎나도되고시픈鐵道員

어데보다도알기쉽다

어데보다도會費가低廉

어데보다도卒業迅速

滿鐵을비롯하여全國各公私의鐵道員大不足每年新規大募集小學卒業生試驗合格되면곳鐵道員으로採用되여將來는車掌·機關手·助役·驛長으로出世한다

採用試驗每年各地數回開始

準備는只今곳

本會에서鐵道之友講義錄을發行하여合格指導하여 只今곳入會準備하여 合格의榮冠을어드라! 每年合格者多數續出證狀山積、機會는只今也

★葉書로申込하십시요

東京市牛込區台町十五 日本鐵道教育會

見本冊進呈

男女 毛深い方へ 脫毛劑ラベル

多毛로보기승한것은 男子의羞耻

◎効力第一

男女를勿論얼굴에털이 만흔분胸毛、팔뚝털、정갱이털其他身體中의 쓸데업시 털난데바르면愉快하게脫毛되어 매끄러운皮膚가된다

世上에脫毛劑는만히잇지만참으로効力잇는것이업슴으로遺憾이나本藥만은充分信賴하시고試驗하십시요.

男女를勿論털이만흔은곳코곳面刀를해야하니귀치안코第一아이누人가태서는사람모이테나갈수업다。그것에는効力本位로只今大評判인라베루脫毛劑를쓰시는것이無害安全하야皮膚를爲해서도第一조타。

이러케간혼털도라베루로깨끗이 업샙시다

說明書無代進呈

東京市牛込區富久町百十五 進文館藥品部

葉書로申込하십시요아무도모르게個人名으로無代進呈함

淋病藥

淋疾은잘아나ㅅ는가 웨淋疾은根治식혀라

秘密病인까닭에

淋疾은 낫기가어려운가하면 秘密病이기때문에 正當한治療를 밧지못하고 治療上에 必要한 養生法을 嚴守치못하므로 가장治療하기쉬운急性의 治療期間을 놋치고 病勢를 惡化케하는等 淋菌을後部로移行시켜서慢性이되는때문이다

尿道에마듸가생겨

慢性淋疾이되면 尿道의 一個所 또는 數個所에 硬化한 멍우리 即 마듸가 생겨서 尿道가 狹窄되게된다

可恐할淋菌의毒力

男子의不姙症

淋菌때문에 睾丸을 害치면 一生子孫을 일허버려서 아해가 안된다

淋毒性류ー마치스

淋毒이全身에미치는症狀으로서나타나기쉬운것은 淋毒性류ー마치스로 神經痛도誘發한다

愛兒를장님으로

나면서부터장님이되는것은大部分이 母體의淋毒感染으로생기는것이며

最愛의妻에 感染된경우

如何한藥劑를選擇할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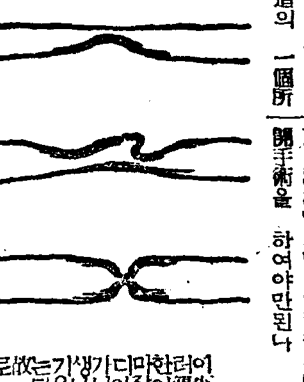
內務省衛生試驗所封緘의 治淋劑六種을 主藥으로해서 配劑한 許可濟治淋劑이다

淋疾患者는

內務大臣을會長으로하는

藥의有効無効는小便을보아알수잇다

淋疾患者는여러가지廣告에속지말고 有田드라구專賣所를차지라



다긴생가듸마한라이 (尿道狹窄圖)

有田 別製 治淋劑 急性慢性再発性淋病

有田 別製 驅毒劑 ヨコネ・カンソ 二期三期梅毒

有田音松謹製

良いから効く 効くから賣れる

有田ドラッグ

學園의不祥事!

先生에게毆打當한生徒 週餘呻吟·突然急病死

大東商業四學年生의奇怪한死因

失心의父親、問題先生相對로告訴

숙제를 하여오지안핫다고 선생이 제자를 때리며 퇴학을시킨다고 을러대자 학생은 집으로도라가 독약을마시는 소동을일으키고 병원으로 떠메간후에는 급성늑막염으로 기괴한 죽엄을한 근래드문 불상사가발생하여 교육계에 일대충동을 주고잇는사건이잇다

부내신설정(新設町)사정목이백십팔번지의 구호 균명학교(均明學校)교장이오만리현(萬里峴)예배당전도사인 김영순(金永淳)(四七)씨의 둘째아들의환(義桓)(一八)은 지금까지 부내계동정(桂洞町)대동상업학교(大東商業學校)사학년 에이조(A組)에 재학중이엇는데 지난십이일여섯시간재인상업부기시간에 숙제를하여가지안햇다는것으로이학과담임인 문승욱(文承郁)(三七)선생은 시간이 끗나자 의환을 다리고 직원실로 들어가 숙제를 안해온 놈은 학교에 부처둘수업스니 퇴학을 시켜야지한다고을르며 한무로때리엇다 이때의환은 졸업이라는 말에 겁이나서 『만일졸업을 시키시려거든 제아버지를 불러서 말슴이나 하시고 퇴학을시키서야지 저는집에돌아가 할말이 업게되지 안허요』하고 애소하엿스나 문선생은 『네아비를 불르고 아니부르는것은 선생마음대로이지 네가 무슨말대꾸이냐』고 호령을하고 또 따리엇다고한다 이러한 일을겪고 학교에서 오후다섯시쯤 돌아온 의환은 퇴학을아주당한것으로알고 근처가개에서 양잿물 두덩이를 사가지고 자기방인 뒷방에들어가 마시고 말엇다 신음소리에놀란 부형들은 곳 쌀뜨물을먹여 양잿물을토하도록하고 자동차에태워 대문통『세부란스』병원으로 갓다가 입원치료를 시켯다 이비인후과에서는 곳응급치료를하고 내과로 옴기엇는데 의환은 그이튼날인 십삼일부터 갑자기급성늑막염(急性滲出肋膜炎)을병발하여 십칠일에는 열구리에서 물까지빼내고 십팔일에는병세가갑자기 더악화하야 오후세시반 사망하고말엇는것이다 그러나 학교당국에서는 이불상사를 그대로묵살시키려고 김영순씨에게 어사실을 경찰에나 신문관계자에게 알리지말면 치료비와 장례비를 부담하겟노라고까지 이야기하야 김씨의 더큰 분노를 사게되어 십구일 종노서에 가해자 문선생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기에이르럿다

그런데 문제의 문선생을 십구일밤 삼청정(三淸町)일백삼십칠번지 자택으로 찾엇스나 외출하고 부인이 나와『학교일판계로 교무주임댁에 가신듯하다』고말하엿다 (사진은 김의환)

가슴아픈일 父親 金永淳氏 談

자식놈을 먼저나를하고 말것더니 그러케 음독까지하고 늑막염이 일어나 죽을줄은 몰랏습니다그려 그러니 이것은마진까닭이 아니겟습니까 나는 우리아이놈이늑막염으로 진단이되자 대동상업학교의 교무주임한상길(韓相吉)선생과 그아이의 담임인 김명진(金鳴鎭)선생을 차젓더니 그교무주임말이 요번일은 오로지 문선생의 살못이니 용서하라고합니다그려 나도 처음에는 가르파우자라는 입장에서 사건을 될수잇는대로 온당하게 해결하려고 햇섯스나 장례비용을 부담하느니 칠복을 지키라는니 너무 이며칠을 무시하는 학교당국이 괘상한태도를 보이므로 나보다도내아오가 분개하여 고소를하게된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보가 되고한다면 두달동안이나 되는것이니고 소한것도 계속하고 지금은그저가슴이 아플뿐입니다

駭怪한學校當局態度

事件一切를隱蔽하려고裏面策動

문제를 이르킨 문승욱(文承郁)선생은 작년에도 생도를때리어 학부형에게 시비를 바든일이잇고 근래에는 그 도수가 빈번하여 학교당국으로서도 여러 주의를 시켜왓다고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사건을 감추기위하여 한(韓)교무주임이 수차 김의환의 가정을차저 신문기자와 경찰에 알리지안토록하여달라고 청하엿는데 의환이가 죽고나자 십구일에는 이로말미아마 생긴 모든비용을 전부 부담할터이니 말을내지 말어달라고 청하는동시에 교장은 문씨를 면직처분 하다음 외부사람에게는 사건전체를 부인하고말엇다

事實絶對否認 校長 金萬壽氏 談

동교교장 김만수(金萬壽)씨는 말한다

우리학교에는 그런사실이 업슬뿐더러 나로서는 그런소문도 못들엇고 문씨란교원은 우리학교에 잇지안습니다

하고 사건일체를 전부 부인하는태도를 보이고잇다

致命傷은 急性肋膜炎 擔當醫師 談

김의환(金義桓)의 담임의사이엇든『세부란스』내과의사 이철영(李喆永)씨는 말한다 『병명은 급성위염(急性胃炎)과 급성침출성늑막염(急性滲出性肋膜炎)입니다 급성위염은 음독한까닭이겟스나 목숨을일흔 치명상은 급성늑막염입니다 그학생이 선생한테 마젓다는 말을하는것은 들엇는데 급성늑막염의 병원이 반드시마저서생기는것이라고 할수는업스나 흔히는 마저서생기는 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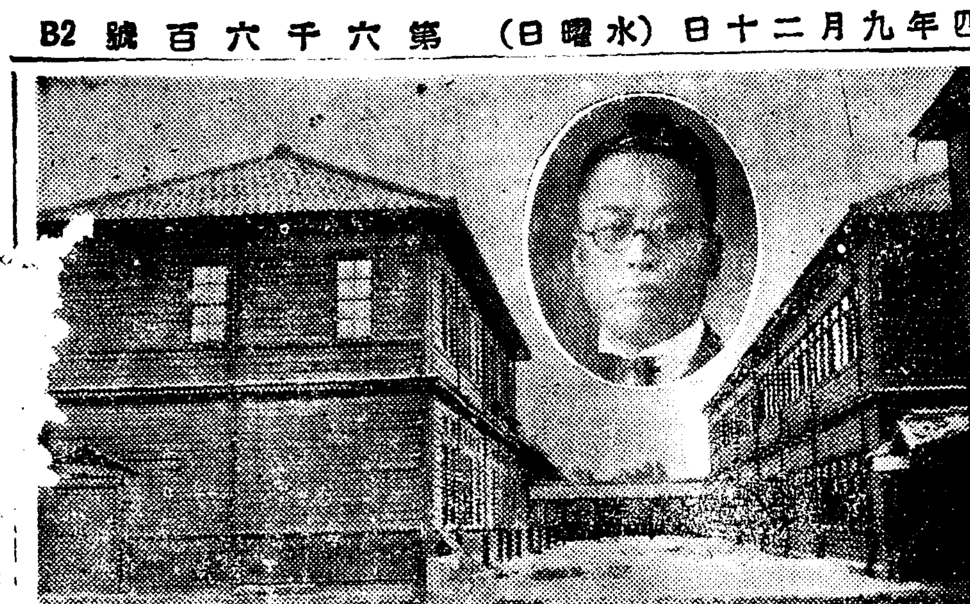
總督을보내는 三町民送別會

부내왜성대정(倭城臺町)일출정(日出町)수정(壽町)등세동내 주민들이 자부자모(慈父慈母)와가치 경모하던 남총독부부는 드디어 오는이십이일총독부뒤신무문(神武門)박게 굉장히 신축한 새관저에 이사하기로 되어 오랫동안 다정하게지내던 정내주민들과 작별을 하게되엇다이 세동내사람들은 작별을 섭섭히생각하는 이상의 이십일오후다섯시부터 일출소학교강당에서 남총독부부의 송별회를 개최하기로되엇다 그리하여 남총독부부도 이에 출석을 쾌락하고한정민으로서 오랫동안 페를 끼첫다는등 그동안 지내던이야기를하여 석별을 고하기로되엇다

그리고 또 남총독이 한반원으로 가입하엿던 왜성대애국반에서는 삼교경무국장(三橋警務局長)이하 전반원이 모여서오는이십일오후오시부터 왜성대관저에서 송별회를 개최하기로되엇다

東新商科學校 校舍新築

今冬弘濟外里에竣工



부내도화정(桃花町)이번지 동신(東新)상과학교는 지금으로부터 오년전인 소화십년시월십일 부내 수표정(水標町)사십이번지에서 현교장 김보영(金保榮)씨가 창설하엿든것으로서 그동안 만혼 난관을 넘어서 지금에는직원열다섯명, 생도이백여명을 포용하는 현상에이르러 교운이뻐처서 지난이월에 산수조코 공기맑은 홍제외리(弘濟外里)에일만이천여평의 교사기지를 사고 이번다시 경기중학교 구교사를 매수하여이를 십이만원의 경비를드려 전기기지에 옴기게되엇는데십이월까지에는 준공될모양이다

그리고 이교사설계는 본관은 이층으로하고 교장실, 직원실, 응접실, 도서실, 표본실, 교실등을되어잇고 이외에 강당과무도장을 겸한건물과 숙직실등으로 백여평을 건축하게 되엿고 기숙사도 명년안으로 지으리라는데 이교사가 완성되는 동시에 다년간 숙원이던 상업학교로서의 인가도 될것으로 기대되고잇다 이에대하여 김교장은 다음과가치말한다

『우리학교가 이가치 순조롭게된것은 오직 사회여러분의 힘과 학부형여러분의 덕이어서 기피 감사하는 바입니다 저이도 이에 성의를 다하여 여러분의 기대에 만분의일이라도 보답하기에 힘쓰겟습니다』 (사진은 경기중학 구교사와 김교장)

吉州全急電話開通

【吉州】금년도지급전화는 십오일부터 가설에 착수하여십칠일에맛첫는데 직기와가치 개통을하게되엇다고한다

百四九番 本報分局 李與洙
五○番 杏亭局 崔壽岩

今番旱害救濟工事 中間搾取徹底排擊

勞賃撤布目的에違反되는請負制禁止

총남부조선 철도의해 구제사업은 이번일로 임시긴급도회를 마지막으로 관계각도의실시준비가 대개완성되엇는데 어에대하여는 실무일 총독부국장회의에서도 남총독(南總督)으로부터 근본대방침을 훈시한바잇섯거니와 이번재해는 일직이보지못하던 참경인만치 총독부에서는 그구제사업의 실시를매우 엄밀히하여 재민들을 궁경으로부터건지에 유감이업도록 하고자 여러가지로 연구검토를거듭하여오던중 십구일 다음과가튼 사항을결정하여 대죽내무국장(大竹內務局長)의담화로써 발표한바가잇섯다

금년경기도 이남도의대의 한발상황은 그쳐심한바가 실로미증유의재해로서 그이재민의수가 또한 극히 다수에달한다 이들의구제대책의 하나로서 전번에 약사천팔백만원에달하는 노임살포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후 이미관계각도에 통첩을발하엿는데 각도에서는 즉시긴급도회를 것처서해구제사업에 착수하기로되엇다 그러데 이번의 해는 그범위가자못 막대하므로 노임살포공사를 실시함에대하여는 특히주도면밀한 주의를하는것이 가장긴요하다 그래서 종래와가치 공사를 청부업자등에게 청부시켜서는 천신만고하여 구제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노임의 대부분이 중간착취를당하여 당초의 본의에어그러질뿐아니라 피거에그러한 전폐가만햇스므로 이번토목사방 임도(林道)토지개량등 여러가지 공사실시에대하여는 청부업자에게 청부를 시키지안는것을 원측으로하여 노임살포의 목적을 철저케하기로 방침을결정한후 십구일 이뜻을 각도에통첩하엿다

南總督、南浦에

黃海戰의由緒기픈蘭花贈與

무적 황국해군의 기초를 싸흔 일청전역의해전(黃海戰)은 지난십칠일로써 사십오주년기념일을마지하엿섯는데 이기념일에잇서 동해전에인연이기픈 왜성대총독관저의 난화(蘭花)『정원』(定遠)을 남총독으로부터 황해전대 아함대(我艦隊)의 근거지로서 이역시 유서기픈 진남포(鎭南浦)에 분여하여 영구히 황해전을 기념하기로되어 남총독은 십구일 흑목(黑木)해군어용계를통하여 진남포의 간기(間崎)해군대좌에게보내게되엇다

이 난화는 황해해전때 적의 기함(旗艦)『정원』(定遠)에실리어 북양수사제독(北洋水師提督) 정여창(丁汝昌)의 사랑을밧던것으로서 정원이 위해위(威海衛)에서 자살하기전 그난화를 아포함(砲艦)『적성』(赤城)에보낸것으로 이후이것을 『정원』이라이름부처 왜성대관저에서심어 역대총독에게 귀염을바다오던것이다

江原主要地間 電話開通

경성—강능간, 이천—삼척사이전화가 오는이십일부터 개통되어 관계지방민의 다년의요망을 이루게되엇다 통화료는다음과갓고 호출료는 일회에 모두 사십전씩이다

京城江陵間	九○錢
同 注文津間	九○錢
同 三陟間	一○○錢
同 襄陽間	一○○錢
利川三陟間	九○錢
同 注文津間	八○錢
同 襄陽間	九○錢

府民館內의興行을 禁止하라陳情

興行業者들의自衛策

십팔일아침 본정서보안계에는 명치좌(明治座)약초영화극장(若草映畫劇場) 황금좌(黃金座) 경성흥행협회(京城興行協會) 대표자들이 차자와서 보안주임에게 태평통에잇는 부민관에서열리는 영화상영등 흥행중에서 순전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것은 우리들의 영업을보호하는의미로 금지하도록하여달라고 지정을하엿다 이에대하여좌등(佐藤)보안주임은 다음과가치말한다

부민관에대하여서는 그전부터 오락장화하엿다는평이 잇섯는데 서장의 의견을들어서 처할생각이다

江陵安木港에 電燈架設要望

【江陵】강릉읍의 관음면만아니라 강릉의 정동시가지점이동읍의안목(安木)항조에는 상음잇는 전등가설이업서 밤이되면동리는 암흑가튼데 원시시대가되는외에 항조일대에서가장 필요로하는 라디오기상통보조차 듯기에여간한불편을 느끼고잇다고하는데동지점일대의 주민들은 회사에서 다소의희생이잇드라도 어떠케하여서든지 동강릉읍의 정상적인발전을위하여 이지점까지는 기어코 전등을 요망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漁船建造費 四千五百卅圓支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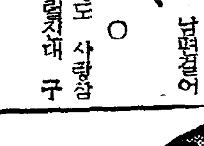
【春川】강원도에서는 어민들에게 어업을 조장하기위하여 도비로서 어선건조비를 매년지급하여왓는데 금년에는 약칠천원을 예산중에서 의선사천오백삼십원을 실사하여야 근일지급하기로 결정되엇다

曆

◀九月二十日 (水曜) 陰八月八日 ▲干支庚申 ▲日出午前六時十八分 ▲日南中午後零時二十七分 ▲日入 午後六時三十六分 ▲晝間十二時十七分 ▲月出 午後一時十六分 ▲月入 午後十一時三十分 ▲滿潮 午前九時二十五分 午後十時十分

今日天氣 晴一時曇

딱총



병수고 구박하는 남편걸어 소송、

○ 병도 사랑삼아 쳐단말인가? 그럿치대 구박은 웬일야!

○ 돈아니준다고 처가족 네명을 살상하고 자살、

○ 돈돌모르는 직승이돼드면 이런 짓은 안할것을。

○ 남총독 말하기를 『일하지 안는자는 먹지도 못한다』고、

○ 일하지안는자는『먹이지도』안하야……

수미運動

運動界 人事·集會

◀蔡蕃氏(前本社員)滿洲國公主嶺滿蒙產業株式會社에入社 二十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發任地에

◀蹴球=神宮體育大會京畿代表決定戰…普成中學對徽文中學(午後零時)、培材中學對松都中學(午後一時半)、中央中學對中東學校(午後三時)、全普專對延專(午後四時半)京城運動場 觀覽料 一般二十錢 學生十錢

京城體協役員

七十五萬京城府民의體位向上을目標로 過般組織된 京城體育協會役員은 左記와如히決定되엇다 顧問其他役員은 近日中役員會에서 決定委囑할터이다

會長 京城府尹 高橋敏 副會長 朝鮮商業銀行頭取 堀正一 同 京城電氣株式會社專務 武者鍊三 同 朝鮮麵子株式會社社長 山田繁吉 理事長 京城府社會課長 宮原馨 常務理事 京城府主事 石川慶一 理事 京城府主事 文錦振 同 京城實業野球聯盟 安田義信 同 京城水上聯盟 荻原佐平 同 京城自轉車聯盟 月野仲藏 同 京城體育協會陸上部 孫光植 同 京城氷上競技聯盟 正木茂久 同 京城重量擧競技聯盟 白龍基 同 京城實業蹴球聯盟 金東轍 同 京城相撲協會 矢部四郞雄 同 京城軟式野球聯盟 井上文市 同 京城排球協會 北島倫儀 同 京城實業軟式庭球聯盟 野副研介 同 京城拳鬪聯盟 黃乙秀 同 京城實業籠球聯盟 金亨泰 同 京城體操聯盟 村岡哲夫 同 京城硬式庭球聯盟 森虎重 同 京城卓球協會 朴在轍

今日延專對全普專蹴球豫想

延專의攻擊力을 普專이封鎖할가,

高潔한精神아래싸우자

蹴球의爽快味를 滿喫할 延專對全普專의京畿代表決定戰은 今二十日 午後四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하기로되엇다 延專現役과 先輩를網羅한 全普專과의 對戰은 延專蹴球戰史上에잇서서 처음인만치 斯界의 期待를이끌고잇는同時에 熱의잇고 內容豐富한 一戰일것이다 最近의實例를보면 早大를마지하엿을때에는 延專이五對一、全普專이三對三으로 各各이겻고 華北軍과는 延專이八對零、普專이四對零이란스코어를 내인것으로보아 延專의 攻擊力이 普專보다 優位에잇슴을 證明하고잇스나 普專은 RF玄孝燮君과 LH金容植兩先輩를 守備線에配置하여 防禦에充實하다면 따라서 攻擊力에도 加勢될것은 事實이니 容易히突破키어려운 對陣이라하겟다 對陣의 普專FW線은 從來의 스탠드·플레이를버리고 스피—드잇게움직이면서 生命으로삼는 叉力을살리려는 새로운作戰을 發揮하고잇스며 兩軍의出戰멤버—를豫想하건대

한데 延專의FW線이 普專의防禦線을 突破할수잇겟는가하는것이 興味의 焦點이자 勝敗의分岐點일것이다 全普專은 守備에比較的 老練한點이잇고 延專은비록 큰게임을 치렷다해도 아직全普專에比하여 若味가잇다 延專은 過去에잇서서普專에게 氣力과鬪志에 눌리어만햇던것을 미루어보아 實力을 超越한精神力에左右되는 延普戰임을 말하여둔다

【延專】【全普專】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illegible]

이번豫選이 朝鮮神宮大會에出場하는것뿐이아니라 明治神宮大會朝鮮代表豫選에서 東京行을決定하는데 咸興、淸津等과 雌雄을決할터이므로 兩軍모두 무거운責任感과 지나친興奮에實力을 充分히 發揮치못할는지도모르나 지더이기던 高潔한運動精神아래 마치기를選手와 觀衆들에게 懇曲히바라마지안는다 (高鳳梧記)

中央中學과 中東各勝

蹴球豫選第二日

朝鮮蹴球協會京畿道支部主催의 朝鮮神宮體育大會 蹴球競技京畿豫選第二日은 十九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리엇는바 그 戰績은 다음과 가트며 今二十日午後零時부터는 中等部京畿代表決定戰이 열릴터이며 一般部의 延專對全普專戰은 午後四時半부터 擧行될터이다

中央2 (0—2 0—0) 0 東星

中央中學對東星商業戰은 同午後二時半부터 朴義鉉(主)李永相 鄭衡熙(線)三氏審判下에 東星軍의 킥오프로 開始한바 兩軍好調를보이더니 十分에 中央의猛襲이잇서 LW李秉雨의 크린슛으로一點을 先取한後 또다시 RI李成煥의 强蹴으로 一點을加하여 二對零으로 中央리—드한채前半을마치고 後半에들어가 東星軍驚起猛襲하엿스나 득點을 이루지못하고 헛되이 물러섯다 (개인六十分間)

【東星】【中央】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illegible]

中東2 (1—0 1—0) 0 商工

中東學校對商工學院戰은同午後四時부터 林鶴植(主)李亨吉 許鍾(線)三氏審判下에 商工킥어프로 開始한바 中東軍의 攻勢猛烈하여 前半에 LW崔一德의 슛으로 一點을넘어 後半에들어서 三十分엔 中東에메날티킥을 利하엿스나 失敗하고 라임업 一分을 남기고 中東LW崔一德의 코—너—킥을 LI張太白바더 슛하여 二對零으로 中東快勝하엿다

【商工】【中東】 GK RF LF RH CH LH RW RI CF LI LW [illegible]

淸津貧民街 大火

『淸津』에서 吳快一特派員發電 청진부수원지압 포항동(浦項洞)일백육십번지 빈민굴에서 돌연 불이 일어나 김동운(金東雲)의집등 두채 여덟세대의 살림과 가옥을 삽시간에 태워 버렷다 발화즉시로 청진경찰서원과 소방조가 출동하여 진화에 노력햇스나 집이 모두 『빠락』이기때문에 미처 손댈사이 업시 전소하고말앗다

번영을 자랑하는 공장지대뒷거리에 가난한 살림을하고잇는 빈민들의 화재인만큼 피해자들은 비통한운명에 울고잇다 현장의 상황을 보매 불탄자리에는 타고남은 세간살이가 흐터저잇는데 여자들과 어린애들의 울고잇는 양은 눈허리를 뜨겁게하엿다 한집건너 겨우화재를 면한『빠락』에는 이빈민굴에서는 어린이들을위한 서당이 잇는데 수업중에 불이일어나 어린가슴들이 몹시 놀랏슬모양이나 불이꺼지나 밧지간도못되어 다시 종을 울려태연히공부를 계속하고잇는양을 보고 가슴에 목직한 무엇을느겻다 그리고 발화원인기타는아직미상하다

稅務吏不正事件 不日送局

경성세무 감독국원(元)간세과장(間稅課長)산전관삼(山田貫三)、원(元)경성세무서 간세계주임 마선규(馬善圭)등 아홉명의 세무관리를 중심으로한 양조관계의 증수회(贈收賄)혐의사건은 그동안 경기도경찰부에서 계속해서 준엄한 취조를 계속하고잇섯는데 취조의결과 죄상이명백해젓스므로 불일내로 송국하게될모양이다 이들은 양조업자로부터 금품을 바든외 인천(仁川)、대천(大川)、불로(不老)등여러 에수십차에 걸처향응을 밧고서 그대상으로 술검사때에 지나치게관대한 태도를취해 넘겨주고해온것으로 수회액은 일만원가량에 달하고잇다한다

흙구루마에 小兒가轢傷

십구일 오후세시삼십분경 부내영등포정(永登浦町) 이백오십육번지 권달수(權達守)의 장녀 간난(干蘭)(三)은자기집 아페서 놀고잇던중 방금진행중인 무회정리공사장에서 흙을 운반하는 도록고에치어 외인편다리가 잘너저 쓰러진것을즉시 부근병원에 떠메어다가 응급수당을 가하는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 간난이가 치어 치명의중상을 입은곳은 며칠전에도 그동리어린애가 치어죽은마(魔)의장소로서 청부업자 삼택조(三宅組)에서 감시인을 두지안헛기때문에 이러한참사를 자조일으키고 잇는것이 사실이므로소관 영등포서에서는 삼택조의책임자에게 엄중경고한바잇섯다

獨學 青少年諸君 書一枚를發送하라

自宅獨習一個年에…… 中學을卒業할수잇다!!

日本一の 中學講義錄

無學은男子의恥 獨學靑少年大歡喜!

아무리하여도 이제부터의世上은 中學卒業程度의 學問흠이라도업서서는 안된다 成功이어렵다 本校의 講義錄으로 工夫하면 남에게뒤지지 안는다 自宅獨習一個年의 스피—드로中學의 全科를 卒業한다。詳細는只今곳 葉書로申込次第內容見本一冊無代進呈함

東京市牛込區台町十五 大日本通信中學校

見本無代進呈

鐵道員大不足 各地大募集

鐵道員となると早道

◎나도되고시픈鐵道員 어데보다도알기쉽다 어데보다도會費가低廉 어데보다도卒業迅速

日本第一

滿鐵을비롯하여全國各公私의鐵道員 大不足每年新規大募集小學卒業生試驗合格되면곳鐵道員으로 採用되여將來는車掌·機關手·助役·驛長으로出世한다

採用試驗 每年各地數回開始 準備는只今곳

★葉書로申込하십시요 東京市牛込區台町十五 日本鐵道教育會

男女 毛深い方へ 脫毛劑ラベル

見本無代進呈

多毛로보기숭한것은 男子의羞耻

◎効力第一 男女를勿論얼굴에털이 만흔분胸毛、팔뚝털、정갱이털其他身體中의쓸데업시 털난데바르면愉快하게脫毛되어매끄러운皮膚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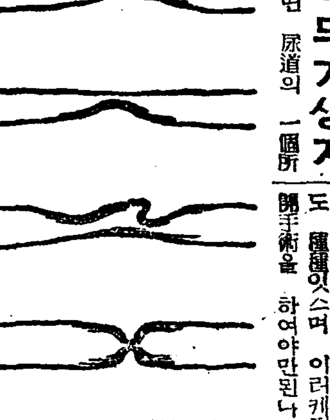
說明書無代進呈 東京市牛込區富久町百十五 進文館藥品部

淋病藥 淋疾은根治식허라 웨淋疾은잘아낫는가

秘密病인까닭에

尿道에마듸가생겨

이러한마듸가생긴다



(尿道狹窄圖)

可恐할 淋菌의毒力

男子의不姙症

淋毒性류—마치스

愛兒를장님으로

最愛의妻에 感染된경우

淋疾患者는 如何한藥劑를選擇할것인가

內務大臣을會長으로 內務省衛生試驗所 主封 藥으로해서 配劑한 可濟治淋劑이다 許

藥의有効無効는小便을보아알수잇다

淋疾患者는여러가지廣告에속지말고 有田도락구專賣所를차지라

有田 別製 治淋劑 有田 別製 驅毒劑

急性慢性再發淋疾病

有田音松鑑製劑

良いから効く 効くから賣れる

ヨコネ·カンソ 二期三期梅毒

有田ドラッグ

長編小說

사랑의 水族館【43】

金南天 作 / 鄭玄雄 畵

戀情·友情 (二)

경히는 벼개를 베고 누어서 생각해 본다.

(나는 김광호에게서 『푸로포-즈』를 바닷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나는 대답을 해야한다. 오늘그가 『노조미』로 떠나기전에나는 그에게 대답할의무가 잇다. 단 하룻밤의 여유밧게 주지 안코 그는 속결(速決)을 요구하고 잇는것갓다. 무어라고 쓸것인가?)

경히는 어제밤부터 준비해둔 종이에 펜을들엇다. 자릿속에서 편지를쓰는건 미안하고 실례가 될것갓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을가지고 방가운데 잇는 후단의 네모난 책상아페가 안잣다. 방석우에 꿀허 안자서 엄숙하게 펜을든다

―광호씨―

하고 시작하엿다. 이 첫 허두가 벌써 일보의 진전이엇다.

이선생!하고 쓴데 대해서경히는 성도 떼어 버리고 그대로 광호씨!하고 써 버리는것이다.

그다음말은 아무리 냉정히쓴다고 하여도 광호는 이 첫허두로 처녀의 마음을 직감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내용은간단히『명령』하엿다. 불손하게 보이리만큼 명령적으로 썻다.

(이런때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회폭한 명령을 밧는것을 즐기 듯이 남자들도 역시 처녀가 명령적으로 나오는것을 기뻐할것이다.)

―떠나시기 전에 상론할 일이 잇사오니 오선(열시) 전각 본정 『가네보』의 『푸르트·팔라』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못나오실 사정이 게시다면 이 아이편에 회답을 적어주시면 고맙겟습니다. 그리고는 이러케썻다. ―즉일 새벽 이경히올림―

여러번 읽으면 고치게될까저어하여 그는 네모난 힌봉투에 알맹이를너코 츰을발라 부처버렷다.

두수일 이상을 서울에잇스면서 맨마지막 몃시각의여유밧게 주지안흔 광호에 대하여이러한『명령』은 당연할뿐아니라 경히로서 취할수잇는 단하나의방도라고도 생각하는것이다.

편지를책상가운데노코 그는몸에『까운』을 걸치고 뜰로나왓다.

디긋(ㄷ)자로된 저택의 안채에는 고모님이 경히의동생―금변 고등녀학교 삼학년에재학중인 덕히(德姬)와가치 거처하고 안채와 사랑을 이어서 디긋자의 한쪽을 이루는 채에는 경히의 올케가 산다.

집이업는 동쪽은 돌안과 중계가 저서 사랑압뜰과 후원에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잇다. 다시 이 디긋자의주택과 넓은 후원을차고도는 전은 담이잇고 그 담밧게 돌안이 잇서서 거기에 하인들이 거처하는 집이 소슬대문안으로 적당하게 배치되어 잇섯다.

경히는 지금 사랑에서 안뜰로 내려와서 나즉히 흰 울타리를 둘려 친 동쪽 정원으로 올라서서, 축석한 나무 숲속을 지나 뒷켯 등넝클을흘린 가장 은욱한 후원으로 걸어가고잇다.

등넝클미테 노힌 흰『벤치』에 안즈면 저택의 지붕이 내려다보여서 이 집의 동정을살필수가 잇다. 그는 밝기 시작하는 가을의 새벽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집안사람들이 기침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동녁은 훤히 터온다. 벌레가 요란 스러우리만치 울스페서운다. 이러케 이른게 후원 에서 새벽공기를 호흡해 보것도 근래에는 드문일이다.

못도록 생각하다가 지처서잣고 나 아침 경히의 몸엔 피곤이 깃들지 안는다.

훗훗은 가라안고 생각도 가라앗스나 가슴에는 송으로사서 안깃 가튼 뒤히가 고지낙히 욱쪽이고 잇다.

여느때 가트면 그는 일곱시나 되어서 일어낫다. 나즐 닥고 회장을 한뒤엔 덕히의 『피아노』 연습곡을 들으면서 책을 뒤적여 본다.

양면서 들아와서 부터는 그는 어학에 대한 흥미를 다른방면의 독서로 돌려 버렷다. 미국유학을 단념하고 제가 할수잇는 가장 적합한 사업을 고르기위하여 자선사업의 실상에 관한 서적 외국자선사업단체의 소개에 관한서적―예를 들면 락아소 고아원 양로원 소비조합 실비의원 웃지원 등등에 관한서적을 모아보는것이엇다.

오늘은 아무것도 읽고자 하지안코 모든 일마와 습관을버려도 그는 후회하지 안는다. 이러케 안자서 김광호를 생각하고 그와 만날일 『스케쥴』을 짜는것으로 하엽는 행복과 만족을 느껴보는것이다.

連續怪談

五矢와五笑

中鼎言 ④

풍운풍이 그여탐하인이 문밖에 나간뒤 길게 한숨을 내쉬며 『아지못할 변이 돌아 다닌단말이지. 흥, 사람은 상하지 안컷지마는 그대신으로 떼거지가 생기겟구나. 운수인가 사람의 잘못인가?』

하며 그 두눈에는 또한 눈물이어리엇다. 풍운풍이 애초에 여탐하인을 내노하 새소문을 염탐해오라하고 또는 친히 거리에나가 이상스러운 소문을 들으려한것은 다름아니라 청석판에서 만난 그괴이한것이 도성안에들어왓스므로 그뒤가 아마도 깨끗치못하여 무슨일이든지 심상치아니한 일이 잇스리라 생각한 까닭이나.

그런데 그일수업는 변이퍼저서 집집마다 모두소란스럽게 되어잇다는 말을 듯고 그것이 장차 큰일을 저지를 증조로 생각하여 누를까지 홀린것이요 그판수와 무당의 신문을조사시킨것은 그괴이한것의 거취를 똑똑히 알려는것이엇다.

그런데 그 여탐하인이 다시 돌아와 알고보니 매우 놀랍다는듯한 기색으로 풍운풍을 향하여

『그병은 무슨변인지 도성안에 유명한 의원의 약을 아무리 이러케 저러케 방문을 고처가면서 만히 쓰되 까딱 업습는데 경이나 굿을 하기만 하오면 금방 숨이 넘어가던 사람도 언제 숨이 넘어갈뻔 햇더냐는듯이 멀쩡하게 일어나 안차오며 그경이나 굿을 읽는자는 두무당이온데 그생김이 똑가튼것은 물론이옵고 의복까지도 돌이서 똑가치 흰옷만 입고 다니는까닭에 흰장동이라 부릅니다. 그러하오나 그고향은 어딘지 모르옵고 도성안에 들어온지는 약 한달전이라하오며 오늘이야 자서히 알아 본즉 그 일수업는 병이 벌써 한달전부터 시작이 되자 그 흰장동이가 어디서인지 들어와 경을 읽기도하옵고 굿을 하기도 하엿습는데 경이나 굿을 하기만 하오면 그러케 영검스럽게 효험이잇서 병자가잇는 집에서는 물론이옵고 다른집에서도 청하여가는까닭에 흰장동이는돈벼락을 맛는다하오며 그돈도달라는것이 한정이어서 아프로며칠만 더지내면 도성안의돈이란 돈은 모두 들들 말려 흰장동이에게로 몰려가게 되옵고 그래서 그경과 굿의덕은 잘 입게되오나 그대신 까딱잘못하오면 떼거지가 생길 지경이라고합니다.』

라고 벌써 풍운풍이 미리추측하여던것에 틀림이업는 형편의말을 자서히말하엿다.

풍운풍은 그여탐한 형편의말을 자서히 들은뒤에 그여탐하인을 향하여

『오오. 잘들엇다. 그런데 네이길로 즉시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至今 警務局과 彷彿)에 가서조제(調提…至今 警務局長)께 내전갈이라고 그흰장동이를꼭 잡아가두라 말슴을 여쭈어라』

하엿다. 그 여탐하인은 빨리사평순위부에가서 조제에게 똑똑히 전갈하자 조제는 그전갈을 듯는 즉시로 여러 순위(巡衛)를풀어서 흰장동이를 잡으라는 엄명을내렷다. 여러순위는 즉시 흰장동이가 경이나굿을하는 현장을달려가서 흰장동이를 잡으려햇다. 그러나흰장동이는순위가들여서는즉시로 홀연이디로 가버렷는지 빤히 보고도 잡을수가업섯다. 그래서 순위들은 크게이상히생각하고 그잡으려는수단을 고처 흰장동이가잇는집이면 먼저 그집을 철통가치둘러차 물샐틈이업게한뒤에 현장에 들어가 잡기로하엿다. 그러나 흰장동이는 순위가 번쩍만하면 역시 오고간곳이 업서저버리엇다. 그래서 사평순위부조제는 크게 당황하여 나중에는 순위를 잇는대로 다 풀어내것는외에 여러 백성에게까지 흰장동이를 잡아바치는자에게는 큰상을주겟다는 영을 내리고 순위와 백성들을 한처서 집을물러싸는것은 물론이요 방방곡곡 어느골목이든지 모두 지키게하고 흰장동이를잡도록하엿다. 그래서 도성안은 별안간 물끌틋이 소동이 일어낫스나 흰장동이는 도저히 잡을수가업섯다.

풍운풍이 그러케 흰장동이를 잡을수가 업다는사정을 자서히듯고 필경은 대궐에 들어가 공민왕께 흰장동이의 전후 내력을 자서히 여쭙고 군사라도 풀어서 잡기를 청하엿다.

공민왕께서도 크게 놀라시면서 즉시 상장군(上將軍)최영(崔瑩)에게 흰장동이를 잡으라 엄명하섯다. 그래서 최장군은 즉시로 만흔 군사를 풀어서 거리로 내보낼새 손으로 잡을수 업거든 활도 막 쏘아서라도 잡으라는 엄한 군령을 내렷다. 그러나 역시 잡을수는업고 도성안소동만 더욱 커젓다. 그런데 이대언(李代言―太宗)께서 어쩐 뜻인지 공민왕께 여쭈어 흰장동이를 잡으려는 군사와 순위를 모두 거두고 전파가치 경과 굿을 마음노코 하게 내버려두엇다.

府民館의興業化 興行協會에서 抗議

경성흥행협회(京城興行協會)의대표자 간도매길(間島梅吉)씨 외 유씨는 지난십팔일 경성본정서(本町署)의 좌등(佐藤)보안주임을 방문하고 부민관(府民館)의 흥행에 대하여 진정을하엿다한다

진정의 요지는 칠십만부민의 유일의 집회장소인 부민관이최근에이르러 영리를 목적하는순흥행에 사용되고 잇는것이심하여저서 우리를 협회측에끼치는 영향이 막심하다는것으로저도 금후는 허가를 해주기전에 협회측에도 한번 물어가지고서 처리하여주엇스면 조켓다는것이라한다. 이에대하여 본정서 보안계에서는

『협회측의 진정도 일리는 잇는말이나 그러타고 오늘내일 사이로 실현하기는 어려운문제니까 충분히 고려하겟다』고 말하엿스나 부민관의 흥행문제는 얼마전 부회(府會)에서도 논의된만큼 장차 이문제가 아프로 어떠케 전개될지주목된다한다

府民에게利用됨이 本來의使命

佐村府民館長談

이에 대하여 좌촌(佐村)부민관장은 다음과가치 말하엿다.

『부민관 대강당의 사용도수가 증가되고 잇는것은 사실입니다. 당관으로서는 창립당시부터의 규정으로서 입장료를 징수할경우와 징수하지안는 경우를 물론하고 모두사용할수잇다』고 되어잇스니까 다른곳에 적당한 집회장소가 업는만큼 다만 될수잇는대로 만흔 부민이이용하여주는것이 부민관의 본래의 사용이라고 이다.

생각합니다』

東亞樂劇團 廿日府民館에서

그동안 지방 순회를 마치고 최근에 입경한 『동아악극(東亞樂劇)쇼-』는 오는이십일 일일 이틀동안 시내 부민관(府民館)에서 제일회 추앙공연을하리라는바 출연자는 대개 각레코-드』사의 전속예술가들이며 특히 무용에는 익찌기 배구자(裵龜子)무용단에서 인정을바든 진수영(陳秀英)양을 비롯하여 김은하(金銀河)배구송(裵龜松)등제양의 호화 『스타』이라하며 입장료는 오십전균일이라한다.

(사진은 本社를來訪한 一行)

百科辭典

▲『라디오』의 전파(電波)는 일초동안에 삼억『메-터』。즉 지구를 일곱번반이나 돌수잇는 속력으로 사면팔방으로퍼지는것이다.

趣味와 娛樂

라디오 九月二十日(水)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 갈비구이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오늘의아두실것
▲午後〇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女性과衣服의調和』 都相鳳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童話『黃金王』 鄭寅浣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歐洲交戰國의經濟力』 朝鮮日報 咸尙勳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殺害의가을』 延專 鄭寅燮
▲同八時 管絃樂 一、古風의메누엣트 키르가노프作曲 二、세레나-드 샤미나드作曲 三、코켓트舞曲 아렌스키-作曲 四、間奏樂 끄다-르作曲 五、로-만스 비제-作曲 六、牧歌 드나멜지作曲 京城放送管絃團 指揮 洪蘭坡
▲八時三〇分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調頭擧 三、半葉 四、編 安龍仙 趙點紅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九時 渾國野談『女中君子』(二) 崔汝成
▲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番組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九) 宋今璇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城)和洋合奏
▲同六時(大)童話
▲同六時一五分(東)講演
▲同八時(東)浪花節
▲同八時三〇分(東)時局讀本
▲同八時三〇分(東)드라마

新秋高手對碁戰

怒濤激浪中에서 慈筏을求한黑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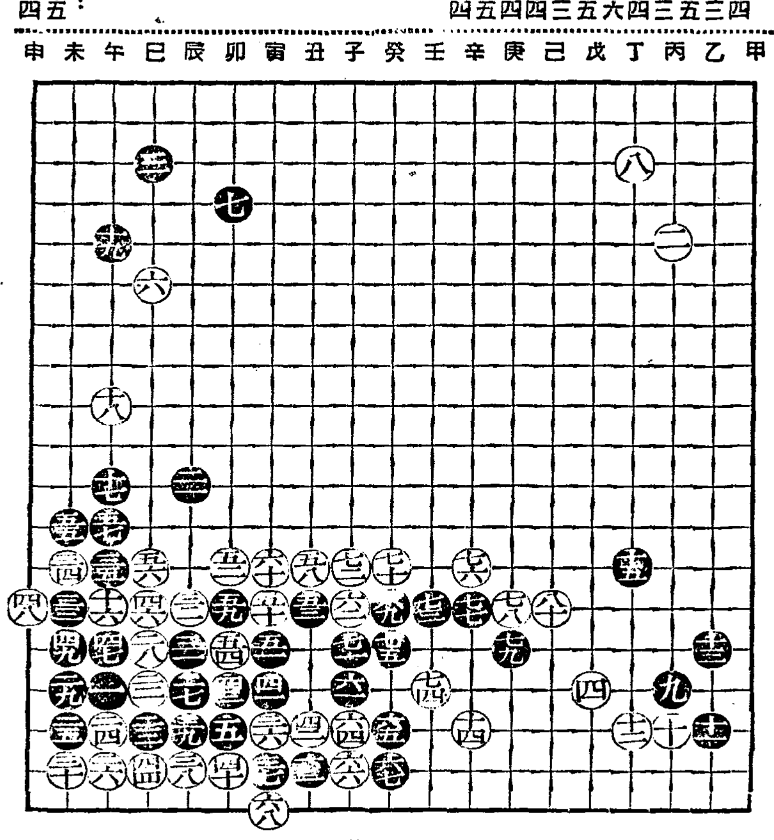
觀戰記 權秉郁

무릇 水必盈科而後에 流하나니 兩軍의 正面衝突이 十分危急하다。黑六九가 癸의一四로 夾着함은 아주조흔수로 認諾하며 白이또同線 一三에外部로 頭하는것도 伯仲之間이다 黑이몰고 白은 잇스니 表裏될만한것은 別로 업는듯하다 이는두 客觀的으로批判에不過하다 만약當局者의 心琴을 打診한다면 熱이며度나오르라내리락하는지?……黑七三이王의一四로버더서나가니白은期於히 跳去十線十六하여黑二石을 切取할까하고 睥睨하기를 마지안는다 그러나黑도守士를양보치안코 잇고야보니이는 徒勇이라할까 좀蠢動이라할지 疑案이 尙存하다 假定하여二點을 放棄하고先手로 中央에高飛逆走하고저하나 大軍이 驟殺할것은 不待二言이다 그러고보니 黑은어쨋든連結하고야하회를기다려봄이 切實하다 白은乘勝長驅로 辛의一三에雅襲하니 黑이그대로 따라나간다 白이二重으로 黑의頭部를 막더퍼노흐니 黑七九가 庚의一五로재처어떠케하든지 脫出을 敢行하나 白은徐徐圖之로 自線一四를鞏固히한다。이現局은 마치黑軍의 怒濤激浪中에헤매면서慈筏을求하고 기다리는듯하다

【8】 白 盧史楚 ★ 黑(先) 齋藤正和 (四目半出)

● 癸의十四 / ○ 癸의十三 / ● 子의十五 / ○ 子의十三 / ● 壬의十四 / ○ 壬의十六 / ● 癸의十五 / ○ 辛의十三 / ● 辛의十四 / ○ 庚의十四 / ● 庚의十五 / ○ 己의十四

劫點…… ○ 卯의十五 / ● 卯의十四



滯症과 胃腸病에

胃腸不健은 萬病의 根源‥‥

……이 된다는것은 多小間이라도 衛生知識을가진분이라면 누구나 認定하는바입니다。그리고 이것은 非單『萬病의根源』이 될뿐안니라 한번걸니기만하면 慢性、痼疾이되기쉬우므로 一平生을通하야 가진苦痛을 받으며 나종에는 제命을다못살고 早死하게 됩니다。그런데 胃腸病을고친다는藥이 不知其數라 할만큼많은데도不拘하고 왜根治되는사람이없는가? 하면 그것은

在來療法의缺陷

에잇다고斷言할수밖에없음니다 胃腸病은 過飮、過食을한다든지 刺戟性의飮食物을많이먹는다든지하였을때 胃酸의分泌이 過多하게되여 이胃酸이胃壁의 粘膜을侵蝕하는것이 原因입니다。그런데 在來의胃腸藥이라는것은 모다 重曹等을 主劑로 한것임으로 一時的으로는 過剩胃酸을中和시키는効驗은있지만은 그것은 胃속에다 炭酸瓦斯를發生시키게되야 또다시 胃를刺戟하므로 根治는 고사하고 도로혀 病을痼疾化시키게 됩니다。그러나『노르모산』은

胃壁을被覆保護

하며過剰分泌된胃酸을吸收하고 또한 胃液의分泌腺을收斂하야 그分泌을抑制하며 胃酸量을調整하는等々의卓越한藥作用을가진『珪酸알미뉴ㅁ』을主劑로한것이므로 아모런慢性、痼疾이된胃腸病이라도 徹底的으로根治해버립니다。

效能 胃酸過多症、胃潰瘍、속쓰림、신트림、胃痛、胃加答兒、胃痙攣、便秘症、宿醉、惡醉、배멀미、車멀미等에卓効함

藥價 三日分(五〇錢) 七日分(一圓) 十六日分(二圓) 一個月分(三圓五〇錢) 二個月分(五圓) 全鮮藥房에잇슴

이外에『小粒노르모산』도잇음

製造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京城出張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〇六

Ⓐ武田發賣品

ノルモザン錠
노르모산

39(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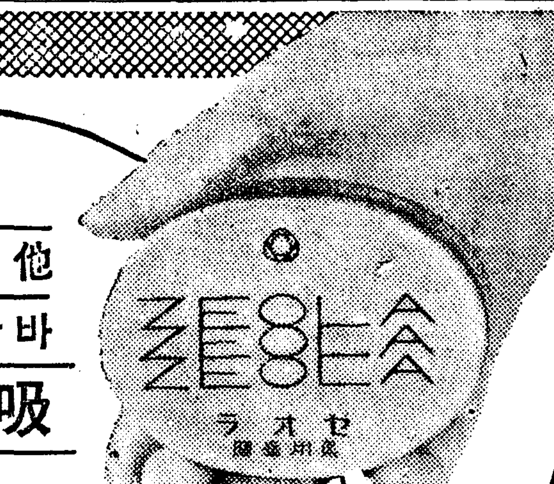
齒磨의浪費를防止少量으로完全効果를發揮함

專賣特許

ゼオラ
제오라

藥用齒磨

白磁入 鑵入 二十五錢



他品에는 바랄수업는

吸着作用

제오라트自體의性能으로口中의汚垢와細菌等을氣分조케吸着하여除去하는作用이주는完全한淨化力으로서虫齒와口臭의發生을的確히阻止하는結果使用後의感觸은在來品의決코미치지못하는爽快함입니다。

＋ 제오라이트의二重効果

劃期的인 威力을가진

置換作用

主成分제오라잇트分子中의結合나트리움이口中의石灰分을化學的으로置換除去하는獨特한作用입니다。어러케齒石의材料가되는石灰分이엽서지기때문에두려운齒槽膿漏를合理的으로豫防하고齒根을强化하여咀嚼力을促進하는效果가잇습니다。

제오라의粒子는齒의硬度에對하여、最高의適應性을가집니다

年에적어도二回는專門齒科醫의診斷을바듭시다

發賣元 東京日本橋兩國 ◎ミツワ石鹼本舗藥品部

8.44